

국통 73-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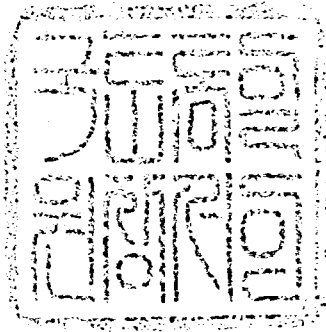
非政治分野交流가 미칠 北韓知識人
階層의 意識構造變動에 關한研究

1973 8.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8



研究機關：韓國外國語大學校

研究責任者：安 秉 永

目 次

第一章	序 言	1
第二章	知識人の 概念 및 그 特性	3
第三章	共產主義的 政治体制와 知識人	22
	I. 序	22
	II. 蘇 聯	22
	III. 中 共	37
	IV. 西 歐	52
	V. 東 歐	55
	VI. 小 結 論	64
第四章	北韓知識人 階層의 意識狀況	69
	I. 北韓의 政治的 階層構造와 「인텔리겐차」의 社会的 地位	69
	II. 專門的 行政經營官僚	73
	III. 技術者, 專門家	77
	IV. 学 界	79
	V. 文学芸術分野	90
	VI. 小 結 論	96
第五章	南北接觸의 深化와 知識人階層의 意識構造의 變化 (結 論)	99
	I. 統一을 위한 段階構造	99
✓	II. 意識構造의 變化의 樣態	101

第一章 序 言

南北間의 對話의 문이 열렸다는 事實이 던져 준 精神的 衝擊의 余韻이 아직 사라지기 전에 南北對話는 中斷危機의 試練을 겪고 있다. 이는 南北對話가 含蓄하는 民族的 次元과 政治現實의 次元間의 利害相衝의 可能性을 보여 주는 端的인 例證으로서 對話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다시 일깨워 주는 契機인 것이다.

本稿는 南北間의 接觸이 계속 深化될 것이라는 큰 前提下에, 이에 따른 北韓 知識人集團의 意識構造의 變化樣相을 지금까지의 經驗的 論拠를 基礎로 하여 推定하여 보려는 意圖에서 쓴 글이다.

따라서 本稿는 現象分析이 아닌 未來學的 研究의 一環으로 理解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지 않은 難點이 提起된다. 즉 南北對話의 方向과 그 段階의 深化過程에 對한 比較的 確實한 予斷斷는 本 研究의 現實政策的 意味는 크게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南北對話의 發展過程은 미리 予見이 거의 不可能한 무수한 變數의 複合的 作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 大略的인 方向에 對한 論理的 推理 以外에 明確한 展望은 至難한 일이다.

이외에도 北韓知識人의 概念과 그 範疇를 劃定지우는 問題, 이들이 처해있는 北韓의 客觀的인 文化的 狀況 및 이들의 意識構造의 分析과 그 變化可能性을 予斷하는 問題등의 難題가 山積된다.

共產主義체제의 變化問題를 論議할 때 흔히 보다 成熟한(發展한) 共產社會의 歷史的 經驗을 援用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 比較의 對象間의 政治的, 社會經濟的, 文化的 諸般條件의 差異를 輕視

하기 쉽다는 決定的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的 政治體制라는 한가지 共通性만이 置重하여 比較의 対象国間의 相異性에 對한 知性文化의 傳統上의 差異를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二章에서 知識人의 概念과 그 特性을 명백히 하였다. 특히 知識人 概念의 原型으로 알려진 旧帝政「러시아」의 「인텔리겐차」의 概念과 「맑스」主義의 知識人觀 및 共產主義 社会속에서의 知識人의 範疇 및 그 分類을 試圖하였다.

다음 三章에서는 蘇聯, 東歐 및 中共의 知識人들의 集團意識의 變遷過程과 知識人과 體制와의 交涉關係를 살펴보면서 政治的, 社会的 異議의 震源을 찾아 보고저 努力했다.

이러한 基礎위에서 第四章과 第五章은 北韓知識人集團의 現況分析과 南北對話에 따른 이들의 意識構造上의 變化의 可能性을 追跡하였다. 특히 第五章에서는 筆者가 設定한 南北接觸의 段階構成과 이에 따른 意識構造의 變化樣態를 對位法的으로 比較함으로써 本稿의 結果를 集約했다.

北韓知識人 集團에 관한 實証的인 資料의 不足과 研究自體의 未來學的 性格으로 인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添言한다.

第二章 知識人の 概念 및 그 特性

I

國際 社会科学 辭典에 의하면 知識人(Intellectuals) 이란 「一定社會內에서 「컴퓨터케이션」이나 기타의 意思發表의 機會를 通해서 그 社會의 다른 構成員에 비해 높은 頻度로서 人間이나, 社會, 自然 내지 宇宙에 關於 一般的 範疇와 抽象的 準拠를 갖춘 象徴 (Symbols of general scope and abstract reference) 를 사용하는 人間衆群」註1) 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렇듯 知識人の 基本的 表徵으로 象徴의 使用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때, 이들이 다른 階層에 비해 보다 많은 象徴을 使用하게 된다는 事實은 이들 本然의 主觀的 性向 (Subjective Propensity) 에서 연원되기도 하거니와, 얼마는 이들이 수행하는 職業的 役割의 機能的 要求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知識人の 知的 活動의 主要 動機 (Motivation) 는 위의 두가지 焦點에서 照明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知識人の 知的인 關心은 실제로 人間이나 社會, 自然 내지 宇宙의 本質的 特徵과의 認識的, 道德的 내지는 評價的 接近의 必要性에서 發源하며, 이러한 必要性은 人間の 心性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나 그 深度는 個個人마다 큰 偏差를 示顯하고 있다. 그러나

註1 : Edward Shills, "Intellectuals", in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7), The Macmillan & The Free Press, 1968, p. 399

一定社会의 知的 關心의 具體的 表現인 科學的, 哲學的, 神學的, 文學的 내지 藝術的 活動의 客觀的 產出物은 그 社會의 傳統이나 一般文化體系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知的 活動의 母胎가 되는 各種 制度 (institution) 에 의하여 刺戟, 培養되고 또한 그 焦點도 맞춰지는 것이다. 따라서 知的 活動에 대한 一定社會의 基本的 反應體系는 知的인 創作, 再生產 및 消費 (受容) 에 대한 그 社會의 諸般 期待의 制度化 (institutionalization of expectations) 에 의해 그 持續性이 維持된다고 할 수 있다. 註2)

一般的으로 보다 分化된 社會에서는 專門化된 知的 役割을 훨씬 더 要求할 뿐더러 이에 대한 補償 또한 크다. 今世紀에 들어서자 科學的 研究와 產業 내지 軍事的 「테크놀로지」間的 密接한 連結이 深化되고 이에 따라 既存의 또 앞으로 전개될 狀況에 의해 기대되는 利益이나 熱望과 결부되는 課題들은 어쩔 수 없이 科學이나 「테크놀로지」의 領域에서 훈련된 사람들의 所關事라는 信念을 一般化시켰다. 또한 公私의 生活領域에서 統計나 其他 經濟的 내지 社會的 分析의 必要性도 차츰 普遍的으로 認識되기 시작하였다.

社會體系的 構造的 分化가 未及한 傳統社會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經濟的 貧困과 「테크놀로지」의 經驗的 單純性, 政府의 役割의 制限性등의 原因으로 인해 知的階層 (intellectual stratum)은 상대적으로 적은 뿐만 아니라 이들은 內的으로 비교적 未分化된 狀態에 놓여 있다. 이에 反해 이제 막 西歐의 文化와의 접촉이

註2 : Ibid. p. 400

加速化되고 西歐에 類似한 制度樹立에 專念하는 發展途上 國家의 경우, 이들 社會의 知識 階層들은 이들의 機能的, 專門的 役割의 重要性和 아울러 이들에게 負荷된 社會的 指導力에 대한 甚大 期待 때문에 一躍 社會變革의 役軍 (change agent) 로 登場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社會에 있어서는 現代流의 知的 素養을 갖춘 成年世代가 몹시 稀少하다. 따라서 이들 發展 志向의 새 國家가 요청하는 知識人의 급속한 養成은 그 社會의 새로운 階層을 이루게 되고 여기서 新旧知識層의 融和問題가 提起되는 것이다.

現代的 西歐社會의 知識階層은 高度로 分化, 專門화된 精巧한 役割體系를 형성하며 이들의 數的 擴散을 통하여 變化에 대한 社會의 適應能力은 提高되는 것이다. 그러나 Edward A. Shils 가 지적하듯이 現代社會의 知性人의 多量的 要請과 그에 應하려는 機械的 多量輩出등은 바로 創造性을 渴求하는 知的 傳統에 대한 謀叛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知識人의 素養은 한결 좁아지고 專門化되었으며, 그 結果는 知的傳統의 計量할 수 없는 精神的인 構成要素인 넓은 知的 空曠氣에 젖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一般의 文化에 눈이 어두운 절름발이 知識層이 어느나라에 서나 점점 늘고 있는 形편이다. 註3)

近代의 知的 傳統은 또한 소위 「大衆文化」로 부터 壓力을 받고 있다. 高度로 발달된 工業社會에서는 높은 生活水準과 더 많아진 閑暇한 時間은 大衆으로 하여금 보다 單純, 素野하고 發散的인 이른바 「人氣文化」의 追求에 급급하게 만든다. 이는 創造的

註3 : E. 「쉬일즈」, 「인텔리겐차」의 運命
(金立三 抄訳), 世界 (1960年 1月), p. 81

生活에 대한 심각한 挑戰으로서 大衆文化의 激流는 이들 大衆의 受容性만을 위주로 하는 同調的이고 安衞한 文化制作을 부채질하며 副造的 文化의 美德을 低落시킨다.

現代社會의 知識人에 대한 또하나의 決定的 障得는 全体主義的 政治秩序의 威脅이다. 全体主義 國家, 特히 共產主義 體制의 國家들은 이들 知識階層의 知的能力을 體制의 政治的 理念에 順應시키기 위하여 知識人의 教育過程은 물론 이들의 生産的 活動에 대한 緻密한 干涉을 恣行한다.

Shils 는 現代 知識人의 運命을 論하면서 「暴政, 過度한 管理로 인한 難涉, 大衆文化로 부터 오는 淺薄과 散慢性 專門化로 인한 拘束—이들은 어떤 意味로서는 知的生活의 周邊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野蠻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侵犯에 대한 마지막 橋頭堡는 知性的 傳統自體의 힘이다」註4) 라고 述懷하고 있다.

Shils 는 위의 論議와 같은 脈絡에서 一定社會의 知的 體系의 構造 (Structure of the intellectual System) 를 決定하는 變數로서

- ① 知的 活動의 遂行者들에 대한 財政的 支援의 源泉
 - ② 知的 活動의 管理方法
 - ③ 知識目標과 實際的 知的 活動에 대한 需要類型
 - ④ 過去와 現在의 知的 業續間의 聯関등을 列挙하고 있다.註5)
- 이중 ①~③의 變數는 실제로 그 社會의 機能的 要求나 政治指導

註4 : 前掲書, p. 87

註5 : Edward Shils, "Intellectuals", Op. Cit., p. 402

体系의 恣意에 의해 歪曲된 蓋然性이 큰 要因임을 想定할 때 이에 대한 反響의 橋頭堡로서 다시 ④의 變數의 有利한 作用에 기대하게 되며, 이는 그 社會의 知性 文化의 傳統과 이에서 연유되는 創造的 힘인 것이다.

이들 現代 知識人의 性格에 대하여 Gaetano Mosca 는 「엘리트」 理論에 立脚해서 興味있는 記述을 하고 있다. 즉 그는 現代社會에서 「엘리트」(權力「엘리트」)는 類似「엘리트」를 통해 社會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類似「엘리트」로서 官吏, 經營者, 「화이트 칼라」, 科學者, 技術者, 學者 또는 知識人과 같이 一定한 意圖와 目標을 갖고 있는 新中間階級을 들고 있다. 이 集團은 「엘리트」(權力「엘리트」)로 充員될 수 있는 供給源的인 性格뿐만 아니라 現代의 政治社會에서 그 나름의 중요한 性格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政治 有機體의 安定은 위에서 지적한 두번째 階級인 類似「엘리트」들이 보여주는 道德的 水準이나 知的水準 또는 活動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 註6)

이렇게 볼 때 知識人의 社會的 役割은 이들이 수행하는 知的 創作活動의 範圍를 넘어서 이들의 政治 指導體系 내지는 大衆과의 聯関構造속에서 보다 폭넓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II

우리가 知性人 내지 知識人을 論議할 때 흔히 「인텔리겐차」(intelligentsia) 라는 概念을 사용하고 특히 知識人의 社會的

註6 : T.B. Bottmore, 「엘리트」와 社會(陳德奎譯), 새글사
1972, p. 15

使命과 연관하여 이를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다. 「인텔리겐차」라는 말은 원래 露語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語彙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곧 旧帝政 「러시아」의 知識人들을 聯想하게 되고, 아울러 이들이 처했던 不運한 社会的 狀況에 대한 얼마간의 憐憫과 또 이들이 보여준 社会的 使命意識에 대한 鄉愁가 곁들이게 된다. 따라서 旧帝政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는 知識人의 弱點과 強點을 가장 명백하게 표현한 歷史的 美例로서, 또한 이들 知的階層의 運命的 役割의 代名詞로서 援用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知識人의 概念의 原型으로 認識되는 「인텔리겐차」의 意味를 그 淵源에 까지 遡及하여 봄으로서 그 概念이 表象하는 바의 意味內容은 밝힐 필요가 있다.

「인텔리겐차」에 대한 정확하고 만족스런 定義란 19世紀의 露文에서는 거의 없었고 더구나 廣泛하게 쓰인것도 아니다. 19世紀 後半 이후 帝政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는 本質적으로 当代의 西歐에 比等한 教育을 받고 政府機關에서 일하지 않는 近代的 知的 「엘리트」로서 構成된다.

처음에는 「인텔리겐차」는 좁은 意味의 知識人, 즉 詩人, 散文作家 및 文學藝術의 批判家들로 構成되었었다. 그러나 1860年代의 改革 후 「러시아」에서도 近代的인 職業 — 教育, 法曹, 醫學, 科學, 技術 — 이 상당한 規模로 발전하게 되자 그 意味도 확대되어 西歐에서 오래전 부터 「自由職業」으로 알려진 훨씬 廣泛한 「카테고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註7) 이들 知的 階層의 特徵을 要約

註7 : 尹, 「서론 왓슨」, 「인텔리겐차」의 系譜 (李敬錫 訳), 世界 (1960年1月), p. 38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텔리겐차」는 우선 非官的 地位, 즉 政治的으로 野党的인 立場을 内包하는 概念이었다. 따라서 훌륭한 高等教育을 받아도 上級官僚인 경우 이는 「인텔리겐차」의 一員으로 看做되지 않았다. 다만 教師나 醫師등 中央官署나 地方官庁으로 부터 報酬를 받는 政治權力이나 官僚權의 享有와 無関한 政府雇傭의 知識層은 「인텔리겐차」의 概念속에 包括되었다.

물론 非官的인 地位와 官的인 地位 「인텔리겐차」와 官僚層 사이의 境界는 모호한 바가 없지 않았으나 兩者間的 구별은 비교적 가능했다. 이렇게 볼때 「인텔리겐차」의 概念에는 体制批判的, 權力超然的 知識人の 氣風과 官祿을 忌避하는 이들의 基本的 姿勢가 두드러지게 浮刻된다.

② 또한 「인텔리겐차」의 概念은 一定水準의 知識 내지 教育의 程度를 표현해 주는 文化的 概念이었다. 따라서 「인텔리겐차」는 垂直的으로 官僚層과 区分이 될 뿐 아니라 水平的으로 文化的 隔差에 의해 「半 인텔리겐차」와 구분이 되는 概念이다. 註8)

무엇보다 「인텔리겐차」와 半「인텔리겐차」間的 区分基準으로 經濟的인 問題로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듯 하다. Victor Frank 에 의하면 旧 帝政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는

① 自由主義的 性向이 강한 傳統的 上流階層으로 1861年 農奴解放으로 그 基盤을 잃기 시작하는 部類와

註8 : 職業的인 革命家가 되기 前에 「레닌」은 「인텔리겐차」의 一員이었고 「스탈린」은 半「인텔리겐차」의 한사람이었다. 前掲書, p. 39

- ㉠ 새로운 社会意識이 싹트기 시작한 庶民出身의 新興知識階 및
 ㉡ 敬養있는 猶太人社会로 構成되는 經濟적으로 보아 전혀 異
 質的 存在들의 混合物이었다. 註9)

그러나 이들은 一定水準 이상의 文化意識을 갖춘 知識階層으로
 단순히 知識에 대한 熱望을 가졌거나 知識人을 假裝하는 이른바
 半「인텔리겐차」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認識되었다. 職業的 革命家
 가 되기 이전의 Lenin 의 「인텔리겐차」의 一員이었음에 반해
 Stalin 은 半「인텔리겐차」의 一員이었다.

③ 旧帝政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는 大衆과의 연관속에서
 考察할 때 이들은 大衆과 전혀 다른 文化圈에 속하고 있었다는
 점이 特徵적이다. 西歐的 現代政治思想 — 自由主義, 民族主義, 社会
 主義 — 과 최초의 접촉을 시작한 이들 先進的인 知的階層의 精神
 的 棲息處는 실상 이들이 발 붙이고 있는 「러시아」 伝來의 文
 化風土와는 異質的인 一種의 副次的 文化(Subculture)의 範疇에
 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大衆을 奉仕의 對象으로
 認識하고 이들에 대한 接近을 不斷히 시도하였으나 이는 실패로
 그쳤다.

人民을 위하여는 어떠한 위험도 甘受해야 한다는 것이 「인텔리
 겐차」의 첫째번 戒名으로 받아 들였던 이들은 「Narod」에 대한

註9 : 「빅터·포랭크」, 「러시아」의 「인텔리겐차」 (李三峰
 訳), 世界 (1960年 1月)
 pp. 47 ~ 49

그들의 熱情을 거의 補償없이 치렀다. 이렇게 볼때 『사실상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悲劇은 大衆에 대한 「인텔리겐차」의 열렬한 사랑이 相對便에서 何等의 反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註10)

官僚社會와의 斷絶과 아울러 그들의 精神的 偶像인 人民들로부터의 一方的 疎外는 이들 旧帝政 「러시아」의 「인텔리겐차」의 悲劇的 孤立相을 보다 완전히 만들었으나 이들은 끝내 人民 즉 「Narod」註11)를 자신의 社會倫理를 밝혀 주는 案内役이자 별빛으로 믿었다.

④ 이들 「인텔리겐차」의 悲劇은 무엇보다 이들이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何等의 共通的 根拠를 갖추지 못한 純粹한 意味의 文化的 階層이라는 데서 연유된다.

西歐에서는 宗教改革 이후 世俗的 知的 「켈리뜨」는 두개의 다른 中流階級 즉 實業家 및 政府官吏와 더불어 成長했고 이들 세가지 中流階級은 共同의 觀点 즉 「브르쥬아」精神으로 連結되어

註10 : 前掲書, p. 51

註11 : 「Narod」라는 말은 (西歐的인 意味의 "Nation"과는 語意的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觀念上 뚜렷이 구별된다) 「國家」 概念에서 政治的 要素는 가장 확실하게 제외해 버린 것이다.

있었다. 西歐의 경우 이들 中流階級은 「브르조아」化하고, 뒤이어 既存의 上流階級을 밀어내며 支配階級으로 浮上하게 된다.

그러나 旧帝政 「러시아」의 경우 「인텔리겐차」는 서로 共通的 利害關係가 全無하였던 관계로 이들은

㉠ 객관적으로는 이 때문에 자기에의 經濟的 利益을 확보하기 위한 有效한 压力団体로서 機能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과

㉡ 이의 逆反應으로 이들은 心理的으로 道德的 理想主義에 寄与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常套語로서 「市民으로서의 憂鬱」(Grazdanskaya Skorb), 「불같은 열성적인 사람」(Goryashchy Chelovek), 「觀念에 몸을 바친 사람」(Ideny Chelovek), 「빛나는 사람」(Svetlaya Lichnost') 등을 例示할 수 있으니 모든 唯物的인 思考方式에 反對하는 「近代에 있어서 가장 人間的이며 道德上으로 가장 순수한 異端者」들이었다. 註12)

이렇듯 「러시아」의 「良心」으로 存在하였던 「인텔리겐차」는 그 概念이 包有하는 本来的 意味와 연관하여 이후 知識人(層)을 表象하는 万国共用語로 昇化된 것이다.

註12 : 「빅터·포랭크」, 前掲書, pp. 52 ~ 53

III

「맑스」主義者의 立場에서는 社会의 한 集團은 生産手段과의 一定한 相互關係를 통해 하나의 階級으로 發展한다. 따라서 旧帝政 「러시아」의 「인텔리겐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相互關係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概念自体가 經濟的 社会關係와는 거의 無關係한 道德的이며 知的秩序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맑스」主義의 立場에서는 階級일수 없는 存在들이다. 註¹³⁾

그러나 다만 한가지 사실은 이들이 旧來의 이론바 “搾取” 계급 과도, 또 새로운 “革命” 계급과도 전혀 관계없이 存在해 왔다는 사실이다. 現在 소련에서 「인텔리겐차」가 차지하고 있는 位置가 막연한 이유도 이때문이고 그들에 대한 共産党的 政策이 항상 動搖하고 있는것도 이에서 연유된다.

따라서 共産党史(「불셰비끄」史)의 “略史”를 보면 同一한 「페이지」에서 서로 矛盾되는 두가지 說明이 들어있다. 그 하나는 다음과 같은 句節로 表現이 되고있다.

「新憲法에 의하면 「쏘비에트」社会는 두개의 親友的인 階級으로 구성된다. 勞動者와 農民의 階級으로..... 「쏘비에트」社会主義共和國 聯邦은 勞動者와 農民의 國家이다.」 註¹⁴⁾

여기에는 물론 「인텔리겐차」라는 말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페이지」에서 우리는 이들 幽靈같은 존재에 대한

註 13 : O.W.Kuusinen, ed.,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Moscow: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6, PP.

F30-31

註 14 : 「빅터. 프랭크」, 前掲書 P.54 再引用

비교적 분명한 定義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소련의 「인텔리겐차」 또한 一種의 變化를 일으켰다. 그들은 대부분이 전혀 새로운 「인텔리겐차」로 된 것이다. 成員의 多數는 勞動者와 農民出身이다. 과거의 「인텔리겐차」와는 달리 이들은 資本主義를 信奉하지 않고 社會主義를 信奉한다. 이제 「인텔리겐차」는 社會主義社會의 同等한 成員으로 되었다.』註 15)

數적으로 비교적 강력한 존재이면서도 宣言 第一号에서는 國家의 構成要員이 아닌 이들이 第二号에서는 社會의 “同等한 成員”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와같이 模糊性을 糊塗하기 위하여 소련의 理論家들은 「맑스」主義의 本來的 立場으로 보아 無意味한 術語를 하나 만들어냈다. 이는 다음아닌 中間層이란 뜻의 「Prosloika」라는 語彙인 것이다.

현재 소련當局에서 定義하는 「인텔리겐차」라는 概念은 革命以前의 「러시아」에서는 비교가 안될만큼 넓은 意味를 包括한다.

“「소비에트」大百科辭典”을 보면 그 뜻은

『社會的 中間層(Prosloika)으로서 職業上 知的勞動에 종사하고 있는 男女(즉 科學者, 技術者, 敎員, 著述家, 藝術家, 醫師, 農耕學者, 被雇傭人의 대부분 등)』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科學者, 技術者, 著述者, 敎員, 醫師, 農耕學者, 國家官吏 및 黨要員, 企業體의 長, 機械 및 「트랙터」場 및 集團農場과 國立農場 등의 支配人, 各級 將校, 敎育文化機關의 幹部, 그리고 藝術家 등』을 「인텔리겐차」의 範疇에 넣고 있다. 註 16)

註 15 : 前掲書 P.55 再引用

註 16 : 前掲書 P.55

다시 말해서 소련식으로 표현한다면 「인텔리겐차」라는 것은 職業人을 포함하는 모든 俸給生活者(勞動者가 아닌)이다.

旧帝政「러시아의 「인텔리겐차」는 이들이 主動이 되었던 二月革命이 短命으로 그치고 「볼셰비끄」政權이 들어선 이래 몰락의 길을 걸었다. 특히 이들은 1918년부터 1921년에 이르는 內亂, 1929년부터 1932년까지의 集團化 및 工業化소동, 1936년부터 1938년까지 계속된 大肅清, 1939년에서 1945년까지의 大戰 그리고 1946년부터 1953년에 이르는 「쥬다노프」事件 및 이以後의 混亂속에서 끊임없이 大量的으로 抹殺되어 왔다.

1961년 소련 共産党 綱領에 의하면 『共産主義의 勝利와 더불어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은 人民의 生産活動 속에서 有機的으로 結合될 것이다.....끝내는 肉體勞動者도 文化的 내지는 「테크놀로지」의 水準에서 精神勞動者의 水準으로 올라설 것이다』註 17) 라고 展望하므로서 社会集團으로서의 이들 精神勞動者 広意의 「인텔리겐차」의 消滅을 予見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産業社会에서 필요한 專門的 技術때문에 이들 知的 階層은 자신의 位置를 社会經濟的 階層構造 속에서 보다 굳건히 할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소련의 경우 現存 「인텔리겐차」는 그 構成이나 在洛에 있어 革命以前의 「인텔리겐차」와 놀라운 差異를 示顯하고 있으나 이들 知的 階層은 뚜렷한 社会集團으로서 아직도 소련社会의 政治的 異議의 震源이 되고있다. 이들 「인텔리겐차」는 소련의 勞動人口中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소련의 狀況을 準拠

註 17 : Alvin Z. Rubinstein(ed), Communist Political Systems, Prentice-Hall, Inc., 1966, P. 33 8

로 共產主義體制下的 「인텔리겐차」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技術的」(Technical) 「인텔리겐차」와 「創造的」(Creative) 「인텔리겐차」로 分類할 수 있다. 註 18)

우선 技術的 「인텔리겐차」는 科學者, 「엔지니어」, 敎育者, 行政家 등으로 이들의 주된 關心은 物質的, 社會的 發展이며 諸般問題에 대해 黨의 判斷을 받아들인다. 또한 이들은 두뇌勞動者에 알맞은 高等教育을 받았으며, 흔히 자신들이 下層階級出身의 難關을 극복한 데 대해 矜持를 느끼며 體制에의 계속적인 献身을 통하여 社會的 上昇을 꾀하는 部類이다. 이들의 特徵은 無政治的(apolitical)이며 忠誠心이 강하고, 自己滿足의 類型이다.

이에 반해 소위 創造的 「인텔리겐차」는 共產主義體制가 가장 골치를 썩이고 있는 部類로써 異議論者(nonconformist), 懷疑論者 등을 포함하는 藝術家와 文學家들을 그 中軸으로 하고있다. 이들은 흔히 疎外된 젊은 層의 偶像으로 등장하게 되고 「휴머니즘」的 價值와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個人의 尊嚴, 民主主義 등에 대한 열띤 關心을 표명한다.

共產主義 政權에 의하면 藝術과 文學은 社會主義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誤謬와 理念的 動搖』에 대항하여 大衆을 敎育하기 위한 「理念的 武器」(ideological weapon)로서 黨에 의해 設定되는 公的 基準에 맞춰져야 한다.

1962年 12月, 朝鮮 作家, 藝術家大會에서 행한 L.Ilyichov 黨 秘書의 演說은 이들 創造的 「인텔리겐차」에 대한 黨의 警告와 敎示를 함께 읽을 수 있다.

註 18 :Ibid, PP. 338 - 339

『우리는 藝術은 항상 理念的, 政治的 傾向을 가지며 또 이는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고 또 特定한 階級이나 社会階層의 利益을 高揚시킬 수도있다. 따라서 우리는 一定한 藝術的 傾向에 접하게 되면 우선 자연스럽게 다음의 疑問을 提起한다.

이는 누구의 利益에 기여하는가?이것이 人民에게 敎示하는 志向方向은 어디인가? 어떤 社会的 理想을 主張하는가.... 生活과 유리된 어떠한 藝術도 生活의 改革을 위해 기여할 수 없다. 藝術家 자신의 善意(good intention)는 어떠한 경우도 그의 作品이 敵의 利益에 기여할 수 있다는 客觀적인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한다』註 19)

따라서 党은 藝術的 過程의 結果를 鑄造할 수 있는 最終的 權威는 党이 가지며, 藝術的 活動은 이른바 「社会主義的 寫實主義」(Socialist realism)의 範疇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技術的 「인텔리겐차」와 創造的 「인텔리겐차」간의 性格上的 差異는 위의 叙述처럼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며 体制에 대한 懷疑, 異議 또한 비단 創造的 「인텔리겐차」의 專有物은 아니다. 또한 위의 分類에서 技術的 「인텔리겐차」의 범주에 들어간 經營的 專門官僚(Expert)와 党性이 강조되는 政治階層(Red)간의 利害相衡 問題와 前者의 行政, 政治 「엘리트」로의 轉化現象도 銳意檢討 되어야 할 問題이다.

「인텔리겐차」의 体制에 대한 批判내지 異議는 크게 보아 「Insider」類型과 「Outsider」·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註 19 : Soviet News, No. 4792 (Jan. 4. 1963), P. 10

즉 「Insider」類型은 專門「엘리트」로서 흔히 高位職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수행하는 機能에 立脚하여 一定한 權威를 행사하는 集群들로서 指導體系의 方法論的 誤謬를 깨우쳐 주고 그 非生産性을 일깨워 주는 不斷한 試圖를 아끼지 않는 類型이다.

물론 이들의 行動樣式이나 이들이 提示하는 処方은 各樣各色이나, 다만 이들이 體制否定的인 立場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들 자신이 體制構成의 一部를 이루면서 體制의 「正常的 運營」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등이 特徵이다. 最近 急進化되기 이전까지는 소련 物理學의 아버지인 Sakharov도 소련社會의 代表的인 「Insider」로 看做되었다. 즉 그가 『進歩, 共存과 知的自由에 대한 思考』를 主唱한 宣言속에서 積極적인 反體制性은 指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Insider」의 역할은 看過될 수 없으니 體制內的 野의 소리로써 이들의 渴求는 오히려 党的 指導體系들의 長期的 變化를 위한 素因으로서, 또한 體制의 活性을 提高시켜 줄 수 있는 動因으로써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Outsider」類型은 事實상 體制에 影響을 줄 수 있는 어떠한 感化手段도 갖고있지 않을 뿐더러 政治局에 의해 「社會를 위해 不必要한 者」들로 烙印적인 爲人들이다. 소련當局에 의해 「버려진 歷史學者」로 불리우는 Andrei Amalrik가 그 좋은 例이다. 예컨대 그는 「소련은 1984年까지 生存할 것인가?」라는 劇的인 表現의 글을 통하여 體制를 痛烈히 비판하고 우울한 未來學(Futologu)을 展開한다. 이들 反體制 知性人들은 흔히 自由派 젊은層의 共感을 얻고 이것이 異議의 폭 (Scope of diss-

ent)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는것이다. 註²⁰⁾

그러나 「Outsider」 類型的 知識人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 自体가 하나의 知的 自由의 희미한 可能性으로 提示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탈린」 時代의 경우 外的으로 表出된 「Outsider」 類型的 知識人은 想像할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IV

이상의 論議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知識人의 概念을 一般的으로 定義할때 이들은 社會의 余他の 構成員에 비해 보다 많은 象徴을 사용하는 集群으로서 이들은 一般的 範疇와 抽象的 準拠를 갖춘 象徴의 사용을 통하여 人間과 社會, 自然 내지는 宇宙의 本原的 側面과 接觸하기를 꾀한다.

② 이들의 知的 活動의 主要 動機는 이들 特有的 主觀的 性向과 또 이들이 수행하는 職業的 役割의 必要性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知識人의 範疇를 정하는 경우도 知識人 集團의 精神的, 文化的 屬性에 強점을 두는 경우와 또 이들의 職種을 중심으로 考慮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흔히 두가지 측면은 複合적으로 交叉된다.

③ 보다 構造的으로 分化된 社會에 있어서는 知識階層은 高度로 分化, 專門化된 役割體系를 형성하며 多重 變出을 통하여 變化에 대한 社會의 適應能力을 높인다. 現代 知性人의 運命은 「暴政, 過

註 20 : Walter D. Connor, "Dissent in a Complex Society: The Soviet Case", in: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3), pp. 48-49

度한 管理로 인한 難涉, 大衆文化로 부터 오는 淺薄과 散慢性, 專門化로 인한 非人間的 拘束 등에 의하여 侵害된다.

이에 대한 抵抗의 橋頭堡는 그 社會의 知性文化의 傳統과 이에서 연유되는 創造力인 것이다.

④ 知識人의 社會的 役割과 연관되어 흔히 知識人 概念의 原型으로서 旧帝政 「러시아」의 「인텔리겐차」의 語意를 追跡하게 된다. 당시의 「인텔리겐차」는 이들이 當時의 官僚社會로 부터는 물론 그들의 精神的 偶像이었던 人民으로 부터 斷絶, 疎外되는 悲劇的 孤立속에서도 人民을 자신의 精神的 地主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의 知的世界의 搖籃은 先進한 西歐文化였으며 이들은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何等의 共通的 基盤을 갖추지 못한 純粹한 意味의 文化的 階層이었다는 脆弱性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社會的 運命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自主的인 思想과 行動, 투철한 社會的 使命意識과 批判精神의 標本으로서 훗날 知識人의 根本屬性을 대표하기에 이르렀다.

⑤ 「맑스」主義의 立場에서 볼때 「인텔리겐차」는 그 經濟的 社會關係의 模糊性때문에 하나의 階級으로 認定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知識階層의 事實的 存在는 끝내 中間層(Prosloika)이라는 어설픈 표현으로 糊塗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精神勞動者와 거의 同意語로 強制規定 되었다. 이들은 文化的 내지 「테크놀로지」의 水準向上과 더불어 「인텔리겐차」의 消滅을 主張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逆의 可能性이 두드러진다. 다만 共產主義 社會의 現存하는 「인텔리겐차」는 그 構成이나 成格에 있어 旧帝政 「러시아」의 「인텔리겐차」의 原型과는 심한 隔差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知識人 集團은 共產社會의 體制批判의 異議의

震源이 되고있다.

⑥共産社會의 「인텔리겐차」는 크게 보아 우선 技術的 「인텔리겐차」와 創造的 「인텔리겐차」로 大別될 수 있다. 대체로 前者는 非政治的이며 體制에 대해서 忠誠心을 표하고 自己滿足의 類型이다. 반면 後者는 藝術家와 文學家들을 中樞로 하는 知識人 集團으로 體制에 대해 懷疑的이고 異議를 가진者가 많다. 그러나 後者에 의해 비롯된 體制批判的 傾向은 前者의 主觀的 性向(知的 關心, 知的 良心)을 刺戟하게 되며 專門家 類型의 知識人の 行政, 政治 「엘리트」로의 轉化現象은 體制의 自由化에 기여할 수 있다. 「인텔리겐차」의 體制에 대한 批判 내지 異議의 類型은 크게보아 「Insider」類型과 「Outsider」類型으로 크게 나뉜다. 前者가 흔히 專門的 權威를 행사하는 體制內의 人士들로서 體制의 活性化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반하여 後者는 反體制的 批判의 旗手들로서 흔히 彈壓의 대상이 되고있다. 後者의 存在可能性은 그 社會에 아직 얼마간의 知的 自由의 余分이 존재한다는 例證이다.

第三章 共產主義的 政治體制와 知識人

I. 序

北韓 知識人 階層의 意識構造를 살펴 보기 위하여는 보다 成熟된 共產主義的 政治體制 속의 知識人의 生態와 이들과 體制와의 交涉關係 내지는 이들의 體制의 變動役軍 (Change agent) 으로서의 役割등을 살펴봄으로서 論究의 定向을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

특히 共產化以後 가장 오랜 年輪을 쌓았으며 旧帝政 「러시아」의 文化的 概念上的 「인텔리겐차」의 意味가 職種別 精神 勞動者의 概念으로 轉化되기에 이를 蘇聯과 政治的 激動期마다 忍苦의 歷程을 甘受해야 하는 中共의 知識人의 경우, 또한 「네오·맑시즘」의 물결속에서 『「맑스」로 부터의 두가지 길』 (Two Roads From Marx) 中 이른바 『젊은 「맑스」』에의 鄉愁를 되씹는 東歐의 知識人의 경우는 이들에 대한 體制의 反應樣態의 變化와 함께 우리의 關心을 이끌기에 족하다 .

따라서 本章에서는 蘇聯, 中共 및 東歐등 주요 共產主義 體制의 경우를 個別的으로 檢討하고 아울러 西歐의 自由民主主義 體制속에서 活動하는 「맑스」主義 理論家의 價值定向의 變化도 아울러 追跡하여 보려한다 . 특히 蘇聯의 경우를 전제르 하여 知識人들의 體制批判的 異議提起의 突相의 把握과 함께 그 震源의 糾明도 함께 試圖하여 본다 .

II. 蘇 聯

蘇聯이나 東歐와 같이 보다 成熟된 共產主義的 社會體制內에서

繼續 噴出하고 있는 知識人들의 政治的 異議의 震源을 바라보는 西歐學者들의 視角은 무척 多樣하다. Walter D. Connor 와 같은 社會學者는 「소비에트」體制內에 심각한 政治的 異議가 存在한다는 事實을 蘇聯 社會의 構造的 變化現象과 이에 矛盾되는 政治的 統治樣式間의 乖離에서 考察하고 있다. 즉, 「코너」는 蘇聯 社會가

① 發展의 높은 水準에서 示顯되는 社會의 構造的 分化 (Structural differentiation) 와 이에 따른 社會的 複合性的 增大現象에도 不拘하고

② 이들 分化를 거듭하고 있는 社會的 諸部門의 統合 (Integration) 을 위하여 政治的 指導體系는 繼續 既存의 『中央集權的 命令支配樣式』 (Centralist-Command Mode) 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蘇聯 社會內의 政治的 異見의 噴出은 이들 相反되는 두가지 現象의 結果이자 그 徵表라고 結論지우고 있다. 註1)

蘇聯은 現代 西歐社會와 마찬가지로 複合社會의 基本的 特徵인 構造的 分化現象을 뚜렷이 示顯하고 있다. 分化란 쉽게 말해서 『多機能的인 役割構造 (Multifunctional role Structure) 가 몇개의 보다 專門化된 構造로 進化』 註2) 하는 것을 뜻한다.

註1 : ① Walter D. Connor, "Dissent in a Complex Society : The Soviet Case", in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3) p.40

② N·J Smelser, "Mechanism of Change and Adjustment to Change", in J·L Finkle & R·W Gable (eds.)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John Wiley & Sons, Inc., 1966) p.20

이러한 構造分化는 特히 「테크놀로지」의 發達, 農業商業主義의 擴大 및 都市化, 産業化의 進行과 더불어 深化하게 되며 이 過程속에서 家族과 같은 多機能의 單位의 重要性은 감소하고 機能的으로 專門化된 社會單位의 比重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社會構造의 分化에 따라 政治, 經濟, 社會등 個個의 制度的 領域들은 어느 정도의 自律性(Autonomy)을 가지고 모두 자기 領域 特有의 目標에 따라 組織된 特色있는 單位를 發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E. Durkheim 이 일찌기 示唆한대로 分化는 그 자체로 近代化 내지 發展을 위한 充分한 條件이 아니다. 오히려 發展은 『分化(Differentiation)와 綜合(Integration)의 對位法的 相互作用』^{註3)}으로 成功的인 統合을 前提로 하지 않는 分化는 所期의 成果水準을 약속할 수 없는 것이다.

分化를 거듭하고 있는 社會의 統合을 위하여는 多樣한 戰略이 構想되고 있다. Connor 에 의하면 社會統合의 戰略이 成功할 수 있는 潛在力은 주로 다음의 세가지 變數에 依存한다.

① 戰略을 構想하는 時点까지의 그 社會의 構造的 分化의 程度 내지는 近代性(Modernity)의 水準

② 그 社會에 傳來된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의 內容과 이의 活性化 내지 持久力의 程度

③ 그 社會의 近代化의 目標

위의 세가지 變數를 중심으로 蘇聯 社會의 統合戰略의 內容을 檢討하여 보자 蘇聯의 경우 旧帝政 「러시아」의 末期인 1885年 ~ 1917年間에 이미 經濟的으로 이른바 『飛躍』의 時点에 접근하

註3 : Ibid.. p.34

여 비교적 近代的인 社会의 面貌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볼셰비크」의 近代化의 「엘리트」에게 直面했던 蘇聯 社会는 이미 社会統合의 問題를 意識해야 할 정도로 構造的 複合性을 示顯하고 있었다.

戰爭과 革命은 「자아리즘」(Tsarism)의 終焉을 가져 왔으나 그의 庇護속에 키워졌던 政治文化는 繼續 生命력을 誇示했다. 「러시아」의 政治文化의 特徵으로 地方的 偏狹主義(Parochialism), 大衆들의 受動的 姿勢, 「자아」專制와 結付된 半 神秘的 樣態 및 — 發展된 企業家的 精神이나 傳統의 欠如에서 비롯되는 要素로서 — 國家를 広範한 社会, 經濟的 諸問題의 解決者, 推進者 내지 調整者로 認識하는 習性등을 指摘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소비에트」社会는 漸次 構造的 變化를 經驗하며 複合社会로 移轉하는 趨勢에 있었으나 그 政治文化의 權威主義的 臣民的 要素는 繼續 그 基盤을 굳히고 있었다 하겠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볼셰비크」의 近代化의 「프로그램」은 그 目標에 있어서 一方 社会變化를 強力하게 志向할 뿐더러 他方 극히 自衛的인 屬性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즉『「맑스·레닌」主義』의 價値體系의 含蓄的 內容을 檢討할 때 傳統社会를 보다 近代社会로 變形시켜 보려는 意志와 더불어 國家安保에 드한 놀라울 정도의 關心이 表明되고 있다. 사실상 「스타린」의 「一國社會主義」(Socialism in one Country)主張에서 보여지는 「防禦的 近代化의 推進者」(Defensive Modernizer)로서의 性格은 이미 「페터」(Peter)大帝의 改革에서 그 萌芽가 發見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때 그 뿌리는 자못 깊다 하겠다.

이미 論議한 「러시아」政治文化의 權威主義的, 中央集權主義的 依

統과 安保問題에 대한 蘇聯 指導者의 固着的 關心은 蘇聯 社會의 構造的 分化에 대한 社會統合의 処方을 「中央集權的 命令支配的 樣式」(Centralistic, "Command" Fashion)으로 劃定지우게끔 誘導했으며, 이는 官僚体制의 統制力을 深化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全体主義的 統合」(Totalitarian integration)方式은 蘇聯 社會의 近代化의 進行과 더불어 차츰 그 限界性이 엿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이른바 「政治領域과 社會領域」間의 不和의 焦點이 되기 에 이르른 것이다. 註4)

社會統合의 「소비에트」類型은 「릭비」(T.H. Rigby)에 의하면 이른바 「命令支配」(Command)樣式으로, 이는 傳統社會(Traditional Society)의 「慣習」(Custom)에 依存하는 統合樣式이나 이른바 市場社會(Market Society)의 「契約」(Contract)的 統合樣式과 구별되는 組織社會(Organizational Society)의 社會統合의 基本定式이다. 이러한 命令支配的 社會統合樣式的 경우 社會는 積極的 當事者와 消極的 내지 被動的 當事者로 分化되며 前者는 萬事를 決定하고 後者는 이에 服從하게 되는 關係가 形成된다. 註5)

蘇聯의 경우 「國家·黨 官僚体制」(State-Party Bureaucracy)로 構成되는 政治體(Polity)는 經濟, 軍事, 教育等 專門化된 社

註4 : Ibid., p.42

註5 : T.H. Rigby, "Traditional, Market, and Organizational Societies and the USSR," in F. J. Fleron, Jr., Ed., Communist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Chicago, Rand McNally and Company, 1969, pp. 170 ~ 87

会的 諸部門과의 交渉에 있어 「주고 받기」("Give and take")
式的 去來過程의 前提없이 一方的인 命令支配樣式에 주로 依存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西歐社會에서 支配的인 契約的 調整方式에서
보기 힘든 「政治」와 「社會」間의 緊張關係를 造成하게 되고, 兩
者間의 不和는 그 社會의 構造的 分化가 進行되고 自律性을 要求
하는 社會的 專門分野의 反響이 높아질수록 深化된다.

이러한 社會에서 『支配的 權力 「엘리트」』는 점차 두가지 觀點
에서 寄生的 存在로 認識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이는 産業化된
社會의 「엘리트」構造上 異物體로 看做된다. 왜냐하면 이는 産業
的 業績 社會의 特徵인 經濟的 合理性에 承服하지 않으며…… 그들
의 우선적 目的은 權力基盤의 鞏固化와 그 伸張에 있다. 둘째,
支配的 「엘리트」는 余他的 社會集團을 끝없이 搾取하는 存在들이
다. 이들의 絶對的 權力 独占과 生産手段과 國家財產에 대한 無
限한 統制를 통해 大規模의 社會生産을 政治目的의 成就를 위해
이용하고 아울러 자신들을 위해 高水準의 個人的 收益을 얻어내기
때문이다』註6) 蘇聯의 知性的 反體制 「팜프렛」인 『Samizdat』
에서 S.Zorin과 N.Alekseev는 『Time will not wait』라는
標題의 글을 통해 이들 새로운 搾取階級の 寄生과 橫暴를 告發하
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蘇聯社會는 『所有者는 없으나 全能하고
貪慾的인 消費者 즉 黨·國家 官僚體制』가 存在하는 異質體制이며
이는 理念的 活性만을 베풀고 모든 外來思潮에 대하여 편협한
屬性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註6 : Zbigniew Brzezinski, Ed., Dilemmas of Change in Soviet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83

사실상 蘇聯의 党·國家 官僚体制의 경우 『出世能力』(Ability to get ahead)은 機能的 効率性이라는 變數에 의해 決定되기 보다는 오히려 上位者와의 人的인 連關에 依存하고 이는 党的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專門的 知識을 갖춘 專門官僚型(Expert)보다 아직도 이른바 政治的 理念派(Red)가 유리한 立場이다. 그러나 John A. Armstrong 의 研究가 지적하듯이 官僚의 生産志向型 動機가 重視됨에 따라 점차 業種變數(Performance Criteria)가 重視되고 있음은 否認하기 어렵다. 註7)

이렇게 볼때 蘇聯의 경우도 순수한 意味의 『Red』보다는 오히려 專門的 能力을 갖춘 政治的 人士가 重視되는 경향, 다시 말하면 『Red』+ 『Expert』 型的 政治 내지 行政 「엘리트」가 要求되는 趨勢가 支配的인 듯하다.

사실상 蘇聯의 경우 党·國家官僚体制에서 長期間 經歷을 쌓은 人物들의 경우 그들의 官僚的 成長過程에서 거의 不可避하게 工業 내지 農業 分野에 관한 管理指導能力, 높고 낮은 水準의 企劃能力을 쌓을 수 있게 되며 이는 蘇聯의 적지않은 頂上級 政治指導者가 一種의 「테크노크라트」類型으로 看做되는 節次이다.

뿐만 아니라 50年代 以後 蘇聯의 政治的 指導体制의 주요한 核心的 地位에 職業的 政治人이 아닌 政治体(Polity)外部의 專門的 知識人이 投入되는 实例가 부쩍 늘어 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專門的 職業人으로 社会的 成長을 한 非政治的 人士들이 中央委員會나 政治局 要職에 參與하여 주요한 政策決定에 一翼을 담

註7 : John A. Armstrong, "Sources of Administrative Behavior : Some Soviet and western European Comparisons," APSR, LIX, 3 (Sept. 1965) p. 652

당하고 있는 예가 그것이다. 특히 經濟分野의 支配人 내지 企劃 專門家들이 拔擢되고 이들이 큰 어려움없이 行政 既存「엘리트」내 지 政治「엘리트」로 轉化되는 현상이다.

예컨대 政治 「엘리트」를

① 經歷의 初期段階에서 政治「엘리트」로 投入되므로써 專門的 職業集團과 별다른 특별한 연관을 맺지 못한 類型과

② 經歷의 中間段階 或은 그 後半에서 政治「엘리트」로 投入이 되므로써 政治體 外部의 專門的 職業集團과 密接한 연관을 맺고 있는 類型으로 分類하고 前者를 充員型 (Recruited Officials) 後者를 拔擢型 (Coopted Officials)로 이름 짓는 경우 前者는 이른바 『Red』로써의 屬性이 강하고 後者는 『Expert』의 屬性이 강할 確率이 높다. 이렇게 볼때 蘇聯의 代表的 權力機構인 中央委員會 (central Committee)에 새로 構成員이 된 政治「엘리트」의 成分 分布의 變遷을 살펴 보면 兩者間의 傾向比較를 할 수 있다(註 8)

中央委員會의 政治「엘리트」構成比較
 充員型 Recruitment
 拔擢型 Co-optation

年 度	類 型	%	数
1952	充 員	75.4	43
	拔 擢	24.6	14
1956	充 員	69.9	65
	拔 擢	30.1	28
1961	充 員	49.7	74
	拔 擢	50.3	75

註 8 : Frederic Fleron, "Representation of Career Types in the Soviet Political Leadership, in: Barry Farrel, Ed., Political Leadership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Aldine Publ. Company / Chicago 1970, p.125

위의 圖表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탈린」時代인 1952年의 경우 中央委員會에 새로 投入된 政治「엘리트」中 充員型이 75.4%로 拔擢型(24.6%)에 비해 월등한 우세를 보였으나 이미 1960年代에 접어든 1961年의 경우 이 關係는 逆轉되어 充員型이 49.7%로 半數 未達인데 반해 拔擢型이 過半으로 불어 나는 現象이 惹起된다.

政治局(Politburo) 構成의 경우 또한 1957年 까지만 해도 充員型인 職業的 政治人이나 職業的 黨僚들이 絶對적으로 우세 하였으나 1957年 政治局 構成 變化이후 이른바 拔擢型이 增加一路에 있어 이미 23次 黨大會 직전에는 職業的 政治人 내지 職業的 黨僚들의 比重이 80%에서 60%로 下降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專門的 職業人내지 技術的 知識人들의 政策開發 能力 내지 問題解決能力이 蘇聯의 社会發展을 위해 不可欠한 要因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일뿐 아니라 蘇聯社会의 社会統合을 위한 政治体(Polity)와 社会体(Society)間的 協力の 試圖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蘇聯과 같이 社会主義的 轉化를 위한 初期段階를 이미 오래전에 극복하고 차츰 經濟發展 一辺倒의 動員政策에서 均衡的인 社会發展 指向으로 方向을 바꾸고 있는 社会의 경우 黨·國家官俸体制内部에 자리 잡고 있는 多樣한 制度的 利益集團(Institutional interest Groups)들 예컨대 黨僚派, 行政官僚派, 經濟支配人 내지 企劃担当者 구룹 軍部「엘리트」, 外交專門家등)間的 相衝하는 利害關係가 형성될 계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權力의 指導層内部에서 生成되는 利害相衝은 결국 調整과 去來의 必要性에서 소위 「엘리트」間的 官俸政治(Intra-elite, bureaucratic Politics) 現象

을 불러 일으키고 이는 이른바 『制度的 多元主義』(Institutional Pluralism)의 싹을 키운다 .

이러한 過程속에서 職業的 政治人의 役割보다 專門的 知識人의 比重이 높아 진다는 一般的 경향은 결국 主要한 政治的 意思決定에 政治的 「이데올로기」性 보다 技術的 知識人의 合理的 慣行이 더 投影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示唆한다 . 다만 이들 專門官僚型의 技術的 知識人들의 體制 批判的 能力은 지나치게 높게 評價하기 어려우니 이들은 知性的 『Insider』로서 異議提議者로 자기 役割을 인식하기 보다는 自身の 『出世能力』開發에 더 신경을 쓸 蓋然性이 높기 때문이다 .

蘇聯 政治權力의 中核機構인 中央委員會나 政治局 構成員中 科學界 내지 學界出身은 極히 稀少하고 특히 作家나 藝術家들은 이들 機構에 거의 代表되지 않는다 . 이는 創造的 知識人의 政治權力과의 接合度가 낮다는 意味로써 蘇聯의 경우 이들 部類의 人物들이 政治「엘리트」로 轉化될 可能性은 極히 낮다 하겠다 註9)

政治局과 中央委에의 代表度 (科學界 , 學界 , 作家 , 藝術家)

種 類	年 度	1952		1953		1956		1961	
		中央委 %	政治局 %	中央委 %	政治局 %	中央委 %	政治局 %	中央委 %	政治局 %
科學界, 學界		2.4	2.8	2.4	0.0	1.5	0.0	1.7	0.0
作家, 藝術家		1.6	0.0	1.6	0.0	0.8	0.0	1.1	0.0

註 9 : Ibid., p.113

一般的으로 볼 때 自由主義的 政治体制의 경우 政治權力의 配分 過程에서 疎外된 政治的 異議論者들은 政黨이나 기타 壓力集團의 形成을 통하여 자신들의 政治的 意志를 表출한다. 그러나 共產主義体制의 경우 政治的 異議論者의 自律的 組織活動은 嚴禁되며 最善의 경우 体制內的인 이른바 制度的 利益集團 (Institutional interest groups)의 形成이 非公式的으로 容認될 뿐이다. 따라서 黨, 國家官僚体制 内部에 可能한 한 体制內的 批判을 敢行할 수 있는 異議論者들의 投入이 必要한 것이다. 특히 政治体 (polity)內에 過少代表된 集團利益 즉 非制度的 集團利益 (Interests of non-institutional groups)을 結束, 表明해 줄 수 있는 潛在力을 갖춘 人物들의 參與가 要求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屬性을 지닌 이른바 『숨겨진 民主的 野黨』 (Concealed democratic opposition)의 적어도 中央委水準에 充員될 수 있다면 体制變革을 위한 계기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批判的 能力이 인정되는 創造的 知識人의 경우, 頂上級 政治指導體系에의 投入은 거의 斷絶되고 다만, 技術的 知識人의 경우에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可能한 것이다.

蘇聯의 경우 創造的 知識人群에 속하는 적지 않은 수의 作家 藝術家들이 反体制的 性向이 짙은 『Outsider』로 化하는 것도 이러한 脈絡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技術的 知識人의 경우 그 知的 關心領域이나 現代사회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役割로 보아 体制追從型이거나 最善의 경우 『Insider』로서의 自己認識이 可能할 확율이 높다.

그러나 創造的 知識人의 경우 그 社會의 傳統的 知性文化의 批判精神을 가장 바르게 受容하는 것이 보통이며 社會的 問題意識

이 透徹하여 『 Outsider 』 化할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일단 創造的 知性人에게서 發源한 政治的 批判意識은 技術的 知性人에게 비교적 어렵지 않게 知的 刺戟을 傳達할 수 있으며 이는 一種의 擴散效果를 隨伴하게 된다. 蘇聯 社會의 경우 그 專門職種의 性格으로 보아 創造的 知性人보다 技術的 知性人에 가까운 적지 않은 수의 自然科學者들이 公共然한 『 Outsider 』로 轉向하는 事例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akhrov의 경우이다.

『 Outsider 』의 경우 體制變革의 實踐的 主役일 수는 없으나 變革을 위한 知的象徴으로서 變動의 可能性과 定向을 밝혀주는 役割과 아울러 批判的 知性文化의 擴散效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異議의 搖籃으로서의 核心을 수행하고 있다.

蘇聯의 경우 「스탈린」死後 絶對的 支配者가 不存하는 狀況 속에서 비교적 극단적인 反知性的 彈圧은 피하고 있다. 이는 蘇聯 社會에 嚴存하는 (또 數的으로나 影響力으로 보아 增加一路에 있는) 「인텔리겐차」階層의 政治的 支持를 考慮한 政策方向으로 이해할 수 있다.

蘇聯 權力層의 對知性人 政策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들의 宗教政策이다.

蘇聯의 政治指導層은 「맑스·레닌」主義에 입각해서 根本的으로 宗教에 關係 敵對的일 뿐만 아니라 이의 궁극적인 抹殺을 피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宗教에 대해 原則的으로 같은 立場을 취하고 있는 中共이 宗教의 將來(終末)에 대해 비교적 樂觀的인 展望과 여유 있는 処方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蘇聯은 60余年間의 反宗教政策에도 不拘하고 宗教의 終末에 대해 극히

悲觀的인 觀點에 서있는 形편이다 .

이는 무엇보다 蘇聯의 경우 共產化가 성공했을 당시에 이미 뿌리 깊은 傳統的 勢力으로서 制度的 宗教 (Institutional religion)인 「러시아」正敎會가 막중한 社会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었고 「맑스」主義의 世俗的 福音觀도 이 歷史的 장벽을 完全히 磨滅시키기에는 너무나 약했던 것이다 . 註 10)

「볼셰비크」政權은 처음부터 극히 反宗教的 政策을 강행하여 1920年 - 30年代에는 그 頂點에 이른감이 있었다 . 그러나 世界第二次大戰 當時 宗教的 象徴이 蘇聯軍人の 士氣提高를 위해 甚히 緊要한 것을 認知하자 宗教迫害의 高비를 급작히 낮추었다 . 이에 대략적으로 1958年 까지는 反宗教政策의 深度가 前戰水準 以下에서 머물렀으나 1958年 以後 余他的 모든 文化的 領域에서 새로이 自由로운 氣運이 澎湃할 무렵 , 宗教的 領域에서는 오히려 時代逆行的인 反宗教政策이 그 熱度를 가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東歐는 물론 中共에 비해 훨씬 더 硬塞化된 宗教政策을 固守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도 制度的 宗教로서의 「러시아」正敎會와 몇몇 「프르테스탄트」集團들이 60년이 넘는 「소비에트」治政속에서도 계속 蘇聯 人口의 一定階層을 包容하며 影響力을 驅使하고 있을 뿐 더러 戰後 이른바 『体系的, 効率的, 教育的 事業이 欠如된』蘇聯內 一部 地域에서는 宗教活動이 급속히 再活되었던 事例로 미루어 蘇

註 10 : Rensselaer W. Lee III, "General Aspects of Chinese Communist Religious Policy, With Societ Comparisons," in A. Z. Rubinstein, Ed., Communist Political Systems, p. 361

聯 当局은 潜在的 反体制集團으로써 宗教集團의 持續性에 대해 거의 絶望的인 立場에서 物理的 彈圧에만 一貫하는 形편이다 .

知識人の 知的 自由의 渴求와 함께 이들 宗教人들의 内燃化된 宗教的 不滿은 唯物論的 立場을 그 教條의 基調로 삼고 있는 執權層으로는 一種의 社会統合의 赤信号로서 重視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註 11)

政治的 異議를 除去하고 可能한 한 全社会階層의 同意 (Consensus) 를 얻어야 한다는 當爲의 壓力은 蘇聯의 政治指導體系에게 賦課된 가장 심각한 問題意識이었다 . 무엇보다 이들은 이른바 『 社会主義的 轉化 』 (Socialist transformation) 의 初期段階 (1929 ~ 31 年) 에서 同意獲得을 위한 強圧的인 方法에 依存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 즉 『 強制的인 行政裝置에 의하여 社会構造를 급격히 變化시키기 위해 』 이들은 組織的 「테러」를 끊임없이 恣行하였으니 이는 共產主義的 「이데올로기」特有的인 狂信的인 『 独善的 「유토피아니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뿐만 아니라 이들은 同意管理 (Consensus management) 을 手段으로 黨의 支配를 받는 多様な 大衆組織 (青年組織 , 勞組 , 民兵 및 各種의 文化集團) 을 活用하였다 .

특히 이들은 靑少年 敎化問題에 큰 關心을 集注하였으니 人間의 完全한 創造物이기 때문에 敎育과 科学을 통하여 共產主義가 내세우는 世俗的 理想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社会化

註 11 ; Ibid. , pp.362 ~ 363

(Socialization) 過程에 關与하므로써 社会主義的 第二世 教育에 큰 힘을 기울였다 . 특히 이러한 教化 및 動員目的을 위하여 創出된 가장 중요한 組織으로 『 KOMSOMOL 』 (Soviet Communist Youth League) 를 들수 있으니 教育 및 就業機會를 얻기 위하여는 이의 許可가 큰 比重을 차지 했다 . 그러나 이러한 巨大組織에 의한 同意管理裝置는 青少年들의 經歷主義 (Careerism) , 冷笑主義 (Cynicism) , 無關心 (Apathy) 등을 助張해 왔다 .

「 스탈린 」이 死去하고 自由化의 氣運이 蘇聯社会에도 서서히 스며 들기 시작하자 歪曲된 青年文化는 反社会的 , 脱線的 行態로 暴發되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蘇聯의 支配層에게 . 難題를 등장되었다 .

이에 대한 処方으로 이들은 一連의 이론바 『 Extra-Judicial Practices 』를 採択하였으니 이는 既存의 大衆組織의 活動을 補完하기 위한 方便이었다 . 여컨데 犯罪는 아니나 共產主義的 道德과 理想主義의 觀点에서 容許하기 어려운 行態矯正을 위한 自發의 公共 組織으로서 이론바 『 同僚裁判 』 (the comrade courts) 내지 『 自進 警察隊 』 (Volunteer Police brigades) 등이 그것이다 .

1957 年에 制定되므로써 反社会的 不純分子에 대한 宣戰布告의 의미를 가졌던 이론바 『 反寄生層法 』 (Anti-parasite law) 도 全体主義體制下에서의 同意管理의 어려움을 증명해주는 實例라 할 것이다 . 註 12)

註 12 : A . Z Rubinstein, "The Shaping of Consensus," Ibid pp.305 ~ 306

Ⅲ. 中 共

20世紀 中國의 「인텔리겐차」는 三世代로 나뉘운다. 우선 19世紀末과 20世紀初의 過渡世代를 생각할 수 있으니 이들은 舊文化에 기초한 傳統的 教育을 받은 階層으로서 沒落하는 國家와 社會의 悲運에 衝擊을 받고 있었다. 이들 世代는 이미 새로운 制度나 外來思潮을 受容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역시 여러가지 점에서 傳統的 文人社會의 一部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現代 中國의 최초로 진정한 「疎外된」 「인텔리겐차」라 칭할 수 있는 20世紀 初頭의 學生世代와는 決定的인 斷絶이 있었다. 다음 세번재의 世代는 5.4運動(1919) 當時의 學生世代로서 이들은 最近 數十年間의 基本的인 知的 傾向의 大綱을 형성해준 世代이다.

이중 最初의 世代는 아직 國家로 부터 疎外되지 않았다. 즉 이들은 아직 傳統的인 것에 대한 鄉愁가 있었으며 國家를 衰亡에서 건져 볼 기대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途上한 두번째 世代에서는 이미 革命의 神話의 出現은 目睹할 수 있으니 이들은 1911年 이전에 엄청난 挫折感을 맛 본 現代的 「인텔리겐차」의 尖兵이었다. 이들 중 얼마는 1911年後에 軍閥戰候가 판을 치던 시기에 政治에 投身했으나 이들 政治的 機會主義者들과 在野 疎外 階層間의 間隔은 자못 깊었다.

다음 5.4 運動世代는 國共合作時 革命活動에 關与되기도 하고 國民黨政府의 官僚가 되기도 했으나 그중 대부분은 역시 疎外된 「인텔리겐차」로 머물렀다.

「인텔리겐차」의 큰 부분이 1919年부터 1927年間에 일반적으로

「左翼」 내지 反傳統的 立場을 지켰다. 또 몇몇 「인텔리겐차」는 特定한 中國文化的 價値의 有用性 내지 優越性을 강조해 西歐的 概念을 借用하여 이를 正當化 시키려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들 後者들은 자신을 國民黨 政權의 官製的 「新傳統主義」와는 구별되기를 원하며 在野에 머물었다. 國民黨 政府는 民族主義의 發揚을 위해 新傳統主義를 내세우며 「인텔리겐차」에 대해 뿌리 깊은 不信을 표출했다. 毛澤東을 主軸으로 한 共產主義 運動이 차츰 그 熱度를 가하자 얼마간의 「인텔리겐차」는 職業的 革命家로 轉化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中國의 「인텔리겐차」의 國家로 부터의 疎外感은 19世紀 中半의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듯 하다. 1911年 革命부터 國民黨 政府의 登場까지 사실상 이들은 疎外化를 강요할 정도의 強力한 國家와 對決해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國家解体를 경험했다. 國民黨 政府下에서 이들은 실제로 疎外化가 불가피 하였으나 政府의 官僚體制는 그들과 社會的 背景에 있어 동일한 階層이었다. 따라서 상호간의 敵對關係에도 不拘하고 多數의 知識人들이 政府와 在野 「인텔리겐차」간의 中間地帶에서 방황했다. 또한 共產國家가 登場하자 적지 않은 「인텔리겐차」들이 轉化를 위한 별다른 適應努力없이 職業的 革命家로 부터 幹部官僚로 옮겨 앉을 態勢를 취했다. 이렇게 볼 때 20世紀 中國의 「인텔리겐차」들의 國家로 부터의 疎外는 前章에서 一瞥한 19世紀 「러시아」의 知識階層에 비해 훨씬 模糊하고 分明치 못한 性格을 가졌다 할 것이다. 註 13)

註 13 : Benjamin Schwartz, "The Chinese and Russian Intelligentsia: A tentative Comparison", Ibid. PP. 353-355

그러나 興味있는 것은 가장 優秀한 中國의 「인텔리겐차」들은 「러시아」의 例에서와 類似하게 實際的 職業 (Practical Professions) 에는 별로 關心을 기울이지 않았다.

官僚로서의 立身, 學問的 生活 내지 著作이 그들이 選擇할 수 있는 代案들이 었고 그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官에의 同調者 (Conformist) 가 되느냐 혹은 疎外된 知識人으로 머무르느냐가 가름되었다. 이들이 비교적 專門職에 關心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이들 「인텔리겐차」의 思考方式이나 行態에 아직 傳統的 要因들이 殘存하고 있었다는 証左였다.

世界에 관한 單極的 解析과 中國이 품고 있는 難題解決의 一元的 処方을 提示하는 「맑스·레닌」主義의 世界觀은 20年代와 30年代의 中國 「인텔리겐차」에게 비교적 広範하게 受容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신을 共產黨에 歸屬시키기는 어렵다.

20世紀 中國은 극심한 政治的, 社會的 危機와 함께 文化的 崩壞와 全体 價值體系의 變異를 體驗했다. 이에 20世紀의 「인텔리겐차」들이 여기서 胚胚되는 眞空을 채우기 위하여 西歐的 價值에 依存해 보려는 傾向이 서서히 胎動했다. 이들은 帝政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들 처럼 自信에 넘쳐 있지도 않았으며 海外的 思想에 그리 익숙한 程度도 못되었고 특히 새로운 方法論이나 定向을 자기것으로 內面化 시키지 못했다.

또 이러한 文化的 危機에서 이들을 지배했던 새로운 傾向의 하나는 國家的 尊嚴에 대한 강한 執着이었다. 19世紀 中半의 「러시아」 「인텔리겐차」들이 帝政 「러시아」로 表象되는 國家 權力과 一體感을 喪失하고 國家의 熱望이나 野慾과 자신들을 隔離시켜 보려 안간힘을 썼음에 반하여, 中國의 경우에는 國家의 弱體

化와 政治的 卑下는 오히려 이들 「인텔리겐차」들의 憤怒를 자아 내게 했으며 여기서 最後의 傳統的인 文人派인 途上한 第一世代와 20世紀의 疎外世代間의 結合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맑스·레닌」主義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中國의 「인텔리겐차」들 속에 滲透될 수 있었던 것은 「레닌」의 帝國主義 理論이 특히 이들 中國의 知的 「엘리트」들의 毀損된 國家的 自尊意識의 補償에 이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는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들이 「맑스」主義의 國際主義에 매료되었던 것과는 좋은 對照를 보이고 있다.

叙上한 여러 가지 要因은 中國의 「인텔리겐차」들이 全体主義에 대해 비교적 和解的 態度를 보일 수 있는 素地를 提供한다. 즉 國家的 威信 내지 尊嚴에 대한 執着, 깊은 精神的 不安感, 오랜 權威主義의 傳統, 國家奉仕에 대한 態度 내지는 資本主義 國家의 帝國主義的 浸透에 대한 憤怒등이 共產國家의 出現을 結果할 수 있는 좋은 土壤이었다 할 것이다.

사실상 많은 수의 「인텔리겐차」들이 共產主義者들의 政權掌握을 적극적으로 歡迎하거나 아니면 묵묵히 받아드리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10月革命 當時 대부분의 政治的 내지 非政治的 「인텔리겐차」들이 反 「볼셰비크」적이었던 「러시아」의 例와 懸隔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中國의 「인텔리겐차」들이 새로운 共產政權을 反撥 없이 맞아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一定한 「맑스레닌」主義的 前提의 受容과 연관을 했을지언정 결코 全体主義에의 歸依를 뜻한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毛政權은 이들 「인텔리겐차」들의 全面的인 「思想改造」를 통하여 이들 階層의 內面化된 一元的 「전선

서스]의 創立을 疎忽하였고 이 過程속에서 「인텔리겐차」들에 대한 뿌리 깊은 疑心の 눈초리를 기울리 하지 않았다. 註 14)

이 상에서 記述된 知性文化의 風土속에서 자라난 中共의 「인텔리겐차」를 보는 中共指導層들의 態度는 兩面的 (Ambivalent) 屬性을 지니고 있다. 즉 이들 「인텔리겐차」들은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緊要한 존재들이나 이들이 西歐式 思潮나 教育의 影響을 받은 個人主義的 性格을 갖췄다는 점에서 信賴할 수 없는 部類 들인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對 「인텔리」政策 또한 寬容스런 受容과 「밀리탄트」한 理念的 改造의 兩極 사이에서 확실히 定向 없이 動搖되는 것이다.

예컨대 1956年 中央委員會는 國家發展을 위한 노력의 一環으로 「인텔리겐차」를 後援할 것을 決議했다. 毛澤東의 이른바 「百花」運動의 意義說明에 뒤이어 周恩來는 主題演說을 통하여 既存의 缺點의 公開批判을 知識人들에게 要求하였다. 여기서 周는 黨의 「인텔리」不信을 否定하며 「이들의 採用과 任用條件을 改善하여 그들의 專門化된 技術을 國家利益을 위해 開發하도록」^{註15)} 당부하며 특히 科學者들은 政府機關이나 學校에서 行政的 業務로 시달려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원하는 바의 研究가 許容되어야 한다고 力說 했다.

「黨 外部에 있는 知識人들도 우리들의 信賴는 물론 支援도 받아야 한다. 이들은 職場과 權威를 갖춰야 하며 그들의 觀點은 尊重되고 專門的 研究의 結果는 評價되어야 한다. 社會主義

註 14 : Ibid, PP.357ff .

註 15 : Chou En-lai, "On the Question of the Intellectuals," Current Background, No. 376 (Feb. 7, 1956), P. 6

建設을 위하여 學問的 討論은 助長되어야 한다.

黨이나 聯盟의 幹部中에는 자기들 보다 높은 地位에 있으나 非黨員的인 者들을 尊敬하지 않는 傾向이 있으나 이는 矯正되어야 할 것이다」註16)

소련의 경우 「인텔리겐차」라는 概念은 이제 그 本來의 文化的 概念에서 어느정도 遊離되어 새로운 專門의 내지 經營的 階層을 指稱하는 語彙로 바뀌었으나 中共의 경우 「인텔리겐차」의 語意는 60年代에 이르기까지 주로 旧「인텔리」階層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들 1949年 이런型의 「인텔리」層은 특히 百花運動時期에 政權의 文芸政策은 물론 黨의 政治的 無謬性 (Political Infallibility)에 대해 날카로운 批判을 敢行하였다.

黨은 1957年에서 61年에 이르는 동안 또다시 「인텔리겐차」의 思想改造를 강조하여 이른바 「프로조아 인텔리겐차」의 「프로레타리아 인텔리겐차」로의 轉化에 拍車를 가했다. 「인텔리겐차」에 대한 새로운 批判에서 그들은 이른바 進上한 概念 分類上의 技術的 「인텔리겐차」와 創造的 「인텔리겐차」를 구별하지 않고 이들 모두가 「黨 路線外의 準拠基準을 가지고 黨에 대한 批判을 일삼는」階層으로 못을 박았다. 中國이 共產化된 후 20年이 지나는 동안 毛政權은 그간 보다 社會主義的 意識이 透徹하고 體制에 順從的인 새로운 「인텔리겐차」의 養成에 期待하여 왔으나 크게 보아 이들의 노력은 充分한 補償을 받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다.

註16 : Ibid., P.6

Benjamin Schwartz가 강조하듯이 中國의 傳統的 知性文化는 全體主義가 胚胎될 土壤을 제공하기도 하나, 이는 또한 「支配者의 恣意的 意志를 超越하는 道德的 規範에 관한 概念과 또한 이 規範을 保衛하여야 할 文人層의 公民的 義務에 관한 概念」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中共의 執權層은 「인텔리겐차」를 體制를 형성하는 統合的 構成要因으로 看做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予斷하기 어려운 變數」(Unpredictable Variable)로^{註17)}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革命的 「이데올로기」와 共產主義의 獨裁를 標榜하는 共產社會의 理念的 政治人(Ideologues-Politicians)들과 이들의 補助裝置들로서 이들에게 봉사하는 技術的, 文化的 知識層間의 緊張關係는 어느 社會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Red」와 「Expert」間의 葛藤關係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體制形成期(System Building)의 難關을 극복한 共產政權은 體制管理(System Management)期로 접어들면서 차츰 政治的 忠誠心을 앞세우는 党性의 強調에서 專門技術的 能力을 重視하는 專門性의 優待方向으로 轉化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는 大規模의 動員(Great Mobilization)時期에 있어서는 政治的 立場(党性)이 우선적으로 考慮되는데 반하여 相對的 安定期의 경우 오히려 專門的 能力이 要求된다는 所論과 意味上 一致되는 主張으로서 中共의 경우 이러한 論議는 대략 妥當한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Ezra F. Vogel의 「政治化된 官僚體制」

註 17 : B.Schwartz, Op. Cit., P.359

(Politicized Bureaucracy) 의 温床인 共產主義의 動員政權의 경우 「党性」과 「專門性間의 相對的 比重問題가 아닌 兩者間의 直接的인 葛藤問題가 惹起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政治性 優位」("Politics Take Command") 의 原則이 適用될 것임은 물론이다.

共產主義의 動員政權의 경우 一般的으로 党的 組織業務나 公安業務 (Party Organizational and Public Security Work) 에 종사하는 官僚類型은 우선 專門的 能力보다 政治的 信任이 더 重視되며 따라서 社會階層上 勞動者 내지 農民出身이 아니면 안된다. 또한 이러한 業務를 위하여는 또한 定規의 高等教育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흔히 이들 要員들은 低級의 文化水準을 示顯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高等의 專門技術 내지 經營管理能力을 요구하는 專門官僚職의 경우 불가피하게 一般的 知的 能力과 함께 專門技術的 技能을 필요로 하므로 党性이나 社會階層의 出身成分보다는 定規의 高等教育을 履修한 높은 文化水準의 人物로 充員되는 것이 常例이다. Vogel은 특히 「Red」와 「Expert」間의 出身成分의 偏差에 주의하여 「政治的 經歷과 合理的 官僚經歷間의 胎生的 分化」(Embryonic Differentiation between the Political and the Rational Bureaucratic Careers) 를 강조하고 있다.註18)

사실상 中共의 경우 1958-59年間의 大躍進 運動을 계기로 社會主義 建設에 있어서 專門家들이 차지하는 重要性에 關係 知悉했음에도 불구하고 政治的 德性에 있어 未及한 이들 專門職 官僚를

註18: Ezra F. Vogel, "Politicized Bureaucracy: Communist China in Fred W. Riggs (ed), 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Duke University Press (1970), P. 550

포함하는 全 「인텔리」階層에 대한 政治 指導層의 不滿은 매우 컸다. 이미 1960年代 初이래 毛澤東은 계속 中共의 「인텔리겐차」들의 「엘리트」 根性和 官僚的 行態를 비난하며 이를 中共 社會의 發展的 需要에 適應하지 못하는 그들의 教育制度 자체의 欠陥이라고 보았다. 즉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中國의 教育制度에 盲信을 하지 않도록 警告한다. 이를 좋은 制度로 생각하면 큰일이다. 極端的인 改革은 많은 사람들이 反對할 것임으로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技術을 擧攻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그런 데로 實際와 접촉하게 되므로 좀 나은 편이다. 그러나 科學者, 純粹科學者들의 경우 困難하다. 그러나 이들도 人文科學 方面을 擧攻하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文學은 現實로 부터 완전히 遊離되어 있고 歷史나 哲學, 經濟學 등은 實際를 論究하는 것과는 無關하다」 「國民學校에서 大學에 이르기 까지 16. 7年 내지 20年이 걸리나 이 期間中 다섯가지 이상의 曠缺을 볼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勞働者가 어떻게 일하는지, 農夫가 어떻게 播種을 하는지, 商人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또 學習期間 동안 學生들은 健康마저 잃기가 일수다」註 19)

이른바 非現實的이고 「엘리트」 養成式인 歪曲된 教育方法과 여기서 輩出된 「인텔리겐차」에 대한 不信은 무엇보다 文化革命을 계기로 그 劇的인 噴出時期를 찾았다. 물론 文化革命의 직

註 19 : Martin K. Whyte, "Red U.S. Expert - Peking's Changing Policy", in Problems of Communism (Nov.-Dec. 1972) P. 19

접적인 目標은 知識人 階層 보다는 劉少奇를 위시한 黨 高位幹部에 있었으나 劉 및 그 一派가 非實際的 教育을 받은 知識人들을 政策決定에 參與시키므로써 이들을 지나치게 優待해온 政策的 失手를 腐懲하려는 意味도 강하게 內包되어 있었다.

文化革命 當時 革命主体側의 「인텔리겐차」에 대한 辛辣한 批判을 集約하면 다음과 같다. 註 20)

① 知識人 및 專門家들은 多樣한 組織속에서 意思決定에 지나친 影響力을 驅使한다. (工場, 研究所, 政治機關, 學校등)

그들은 그들의 地位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특수한 專門性을 이용하고 技術的 決定을 独占한다.

② 知識人들은 安樂椅子型理論家의 性向이 짙고 이는 實際로 부터 遊離되며 大衆으로 부터 絶緣된다. 이들은 그들의 周圍狀況이나 부하들로 부터 배우기 보다는 教科書나 外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들은 자신과 연관되는 좁은 테마에 지나친 関心을 表明하고 社会的 價值 보다는 個人的 榮譽에 관계되는 問題에만 関心을 表明한다. 이들은 大衆과 접촉이 적으므로 그들이 내린 決定은 大衆의 不滿과 不契한 成果를 빚어낸다.

③ 知識人들은 「엘리트」然하고 그들의 訓練과 專門性 때문에 그들이 特殊取扱을 받고 特權을 누리기를 원한다. 經歷(Career)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손쓰는 일을 忌避하고 安樂한 都市環境만을 추구한다.

④ 知識人의 수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組織들은 이들 知識人中 一部만을 써도 되며 残余의 大部分의 知識人에게는 低水準의

註 20 : Ibid. P.20

職業에 보다 필요한 課題를 맡겨야 한다.

이러한 反知性 運動의 根底에는 毛澤東의 「포퓰리즘」(Populism)의 思想과 聯関되고 있음은 自明하다. 「[맑스]는 「프로레타리아」 속에서 자신은 물론 全 人類를 救濟할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했음에 반해 中國의 農夫의 아들 毛澤東은 그들 속에서 民族 그 自体 - Das Volk Als Solches - 를 찾았다」 따라서 그는 「모두가 알아야 할것은 真正한 英雄은 大衆이라는 점이며 우리들 자신은 이에 비해 嘲笑받아 마땅할 정도로 어리석은 存在들이다」註 21) 라고 강조하며 大衆들 속에서 모든 政治的 正統性의 根柢를 찾으려 했다.

文化革命時 「인텔리겐차」들은 「새로운 敵」으로 까지 非難되였으며 이들은 예의없이 大衆批判의 審判을 받아야 했다. Ross Terrill이 中共訪問을 했을때 中國科學 「아카데미」院長은 文化革命當時 自然科學系統의 研究所는 活動을 계속했으나 人文, 社會系統의 研究는 事實상 人類學을 除外하고는 停止狀態에 있었다고 述懷했다 한다.註 22)

文化革命이 터지자 各種問題에 관한 學習 (Study Class) 이 盛行되였고 數多한 組織體가 幹部縮小 運動을 벌려 「인텔리겐차」를 減等시키거나 간혹 이들을 手工勞動者로 転落시켰다. 幹部縮小의 정도가 一說에 의하면 40 - 50 %에 達했다. 특히 1968 年에 이르러 이른바 「5.4 幹部學校」가 全國的으로 設立되고 知識人과 行政官僚들은 農場勞動과 政治學習을 위해 多樣한 期間동안

註 21 : Oeuvres Choiesies de Mao Tse-tung, Peking 1962, Bd.Iv, S.254

註 22 : Martin K. Whyte, Op. Cit., P.18

이곳을 訪問하게끔 되었다. 이들은 農村大衆과의 접촉을 통해 「엘리트」意識을 払拭하도록 誘導했다. 그러나 初期에는 2-3년을 계속했던 學習期間도 近年에 들어 6個月로 短縮되었다.

文化革命後 또한 平素 毛澤東의 主張에 따라 教育制度는 変更되어 初等·中等 教育의 短縮이 실현되었고 高等教育을 받기 전에 最少限 2年間 勞動이나 軍事訓練을 履修케 되는등 制度改革의 폭은 제법 넓었다. 이른바 「非知性的 知識人」(Non-intellectual Intellectuals)의 創出을 통하여 知識人の 「엘리트」意識을 排除하고 諸般 專門的, 技術的 決定에 있어 이들의 獨走를 막기 위한 措置는 文化革命의 實現을 위한 前提로서 받아들여 졌다.^{註23)} 文化革命의 물결이 거처간 후 中共의 政治指導層은 서서히 反知識人 鬪爭의 고삐를 늦추기, 시작하였다. 現職에서 물러나거나 劣等한 職位로 쫓겨 갔던 知識人이나 專門官僚의 大部分은 제 자리를 되찾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共產黨에 入黨도 許容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知識人에 대한 緩和政策도 이른바 技術的 「인텔리겐차」들에게는 보다 빨리 適用되는데 반해 平素부터 심각한 理念的 결함을 지적받아온 創造的 「인텔리겐차」들에게는 그 適用速度가 훨씬 느린 樣相이다.

文化革命을 통해서 毛澤東의 知識人 改造政策이 그간 어느 정도 实效性을 거뒀는지는 措置하고라도 結論적으로 볼때 中共의 경우 「Red」와 「Expert」간의 緊張解決問題로는 아직도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다만 政治的 安定이 계속되는 한 專門家型 知的 「엘리트」의 政治權力에의 接近은 계속 될 것이다.

註 23 : Ibid., P. 21

사실상 현재 中共에는 「別個의 階層으로서 知識人이 尚存하고 最近의 激變에도 불구하고 大衆들에 비해 엄청난 高位職을 享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中共에 있어서의 知識人의 位置란 政治指導體系의 價值定向의 變化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이 명백하다. 百花運動 當時의 예로 보아 이들에 의한 政治的 異議의 噴出可能性은 있으되 이는 一種의 潛存力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으며 政治的 異議가 외부로 表出되는 경우도 體制內에서 專門的 權威에 의해 高位職을 担当하고 있는 「Insider」에 기대할 수 있을뿐 反體制的 「Outsider」에 의한 體制에 대한 正面對決은 생각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이는 특히 中共의 경우 共產化 이후 극도의 閉鎖政策으로 인해 外來思潮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뿐 더러 創造的 知性文化 내지 抵抗文化의 傳統이 비교적 약하다는 問題點도 작용하고 있다.

反知性的 政治彈壓에 있어 어느 共產國家에도 뒤지지 않을 中共의 경우 오히려 宗教에 관하여는 近年에 들어(文革期를 제외하면) 비교적 和解的 態度를 보이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는 무엇보다 宗教의 終末에 관해 中共의 指導層이 극히 樂觀的인 展望을 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宗教에 대해 비교적 여유 있는 태도를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宗教에 대해 悲觀的 被害意識에 사로 잡혀있는 소련에 비해 좋은 對照를 보이고 있다.

中共에 있어서는 歷史적으로 볼 때 制度的 宗教(Institutional Religion)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C.K.Yang이 강조하듯이 거기에는 「宗教生活을 支配하고 世俗的 社會活動을 指導

하는 集權化된 司祭職制가 없었다」^{註 24)} 따라서 中國이 共產黨의 掌中에 들어 갔을 때 이에 對抗하는 土着的 宗教制度는 거의 例證한 만한 것이 없었다. 그나마 組織的으로 어느정도 骨格이라도 갖춘 宗教的 勢力으로는 몇몇 「프로테스탄트」系統과 天主教정도가 있었으며 그나마 教的으로 보잘 것 없었다. 文化的으로 中國社會의 範域을 넘어선 地域인 「티베트」이나 內蒙古에 Lamanism이나 新疆 地方의 Islam教 등은 制度的 宗教로서 그 傳統을 굳혀 왔으나 이점 中國社會의 경우 判異했다.

中國 共產黨은 宗教를 두가지 觀點에서 照明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宗教의 社會的 根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宗教의 認識的 根本에 관한 것이다. 우선 그들은 宗教의 社會的 뿌리 (Social Roots of Religion)은 階級鬭爭으로 보고 宗教는 革命的 「에너지」를 枯渴시키기 위한 榨取階級の 武器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착취계급 (封建領主, 土層「부르조아」, 西歐 植民主義의 走狗) 등이 抹消되며 宗教 또한 그 根本이 허물어 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들은 宗教의 認識的 뿌리 (Cognitive Roots of Religion)를 극도의 貧困과 經濟的 後進에서 또 自然과 社會를 이끄는 勢力을 이해하고 征服하는 데 대한 人間의 失敗 속에서 찾는다. 따라서 中共當局은 人間의 福祉가 增進되고 科學的, 唯物的 思考가 一般化 되는 경우 宗教로 향하는 認識的 誤謬가 서서히 자취를 감출것으로 判斷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黨路線은 宗教의 堙滅로 향하는 道程을 不可避한 自然的 趨勢로 받아 들이고 이에 대한 意識的 関與를 不得已한

註 24 : Rensselaer W. Lee IV, Op.Cit., P.360

경우외에는 피하려는 立場인 것이다. 그들은 공공연히 「教宗의 影響力은 원칙적으로 紛碎되었다」고 주장하며 残余 宗教勢力과는 새로운 中国建設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이는 「敵對的 矛盾이 기본적으로 非敵對的 矛盾으로 轉化」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當局은 反帝國主義, 愛國主義, 社會主義 등의 國號 밑에 宗教勢力과의 共通的인 政治的 基盤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迷信과 區別하여 Islam教, 仏教 및 基督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公的 寬容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宗教라는 對象自体에 대한 彈壓은 가능한 한 피하고 다만 協力을 忌避하는 信者들에게만 個別的인 制裁를 가하는 것이다. 註 25)

中共 政治体制의 對 知識人 政策과 宗教政策을 비교할 때 中共의 文化政策의 面貌를 엿 볼 수 있으니

① 政治的 異議를 提起하지 않고 그 潛在能力이 弱勢인 文化集團의 存立은 認定하며

② 가능한한 이를 社會主義 建設에 動員하되

③ 勢力伸張을 위한 現實的인 企圖가 있는 경우 이는 단호히 統制하며

④ 政治的 危機나 激動期에 있어서는 이에게 責任을 轉嫁, 이를 贖罪羊으로 利用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경우 소련이나 東歐에서 볼 수 있는 創造的 知識人의 「Outsider」로서의 体制批判이나 이러한 運動의 擴散은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로는 專門的 官僚「엘리트」의 社會變化 機能에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註 25 : Ibid., P.366

IV. 西 歐

西歐의 「맑스」主義者는 크게 두 部類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그 한 줄기는 蘇聯의 共產政策에 盲從을 일삼는 追從型 黨僚派 「맑시스트」이고 다른 줄기는 西歐的 知性文化에 기초를 둔 「맑스」主義 哲學者들이다.

前者가 60年代 後半에 이르기까지 例外的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蘇聯의 宗主的 指令에 承服해 왔음에 반하여 後者들의 경우 이미 50年代 後半, 60年代 初期를 거치면서 蘇聯 및 東歐의 官製的 「맑스」主義에 對한 挑戰을 시작하였다. 그 劇的인 例의 하나가 1964年 8月 Togliatti에 의한 이른바 「Jalta-Memorandum」이다. 그는 이를 通하여 「스탈린」主義의 克服을 호소하고 「黨内外에서 文化的, 藝術的, 政治的 諸領域에 있어서 意思와 討論의 自由가 保障될 수 있는 ... 「레닌」主義的 規範으로의 復歸 (die Rückkehr zu den leninistischen Normen)」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西歐의 「맑스」主義의 새로운 趨勢는 비단 「레닌」主義的 規範의 再認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뛰어 넘어 一種의 「맑시즘」의 脫「레닌」化」(Entleninisierung der Marxismus) 運動으로 까지 번져갔다. 즉 「오스트리아」의 代表的 「맑스」主義者인 Franz Marek은 「生産力과 生産關係에 對한 「맑스」主義的 辨證法은 이미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機動하지 못하고 있다」고 說破하며, 「生産力의 社會的 性格과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間의 尖銳化된 矛盾은 社會主義的 革命을 結果하지 못한다. 오히려 經濟적으로 보다 發展된 美國·英國·西獨 등의 경우, 革命的 社會主義는 보잘것 없는 形勢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社會主義는 우리네들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가 獲得한 既存의 戰

取物, 즉 現存하는 自由라는 価値에 새로운 附加的 価値를 約束할 때만 매력적인 目標로서 標榜될 수 있다. ……換言하면 우리는 議會主義의 傳統, 多黨制의 尊重과 政權交替의 可能性을 政治的 信條로 삼고 있다^{註 26)}」라는 破格的인 發言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이태리의 指導的 共產主義者인 Cesare Luporiani 教授는 「나는 多樣的 理念을 標榜하나, 政治的 社會的 課題의 解決을 위하여 協力할 뜻이 있는 集團들의 眞正한 自由란 政府와 野黨間의 辯證法的 關係를 통해서만 具現될 수 있음을 確信한다」^{註 27)}고 述懐함으로써, 獨裁權力的 擔當者로서의 「레닌」主義的 政黨概念의 變改를 꾀하였다.

더우기 이태리 共產黨(KPI)은 「프로레타리아」革命의 政綱을 既存的 市民國家內에서의 進歩的 構造改革을 追求하는 政綱으로 바꾸었고 뒤늦게나마 「프랑스」共產黨(KPF)은 1965年 黨決議를 通하여 「唯一政黨의 存在가 資本主義가 社會主義로 移轉하기 위한 必然的 前提」라는 「스타린」에 의해 주장 되어온 論旨에 反對하는 決議로 飛躍했다.

지금까지 蘇聯 共產黨이 標榜하는 政治路線과 官製的 「이데올로기」에 追從만을 일삼던 西歐의 代表的 共產主義者들이나 黨의 公式的인 決議가 이렇듯 公共然히 民主的 議會主義와 多黨制에 대한 그들의 確信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一元的인 「맑스」解析에 執着하던 이들로서는 커다란 異變이 아닐 수 없다.

註 26 : Franz Marek, Philosophie der Weltrevolution, Wien 1966, s. 109.

註 27 : Diskussionsbeitrag in: Christentum und Marxismus-heute, Wien. 1966, s. 232.

Arnold Künzli는 西歐 共產主義의 이러한 左翼 社會主義化 傾向을 指摘해서 「西歐 共產主義의 議會民主主義體制에의 自己編入」^{註28)} (Selbsteingliederung des Westeuropäischen Kommunismus in das System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現象이라 못을 박고 있다. 이는 이미 50年代의 Herbert Marcuse의 予言을 確認하는 方向의 現象變化이니 Marcuse는 그의 代表作인 「소비엘 맑시즘」의 社會學에서 「소련領域밖에 있는 共產黨들은 - 혹시는 그 内部에 있어서도 멀지않는 將來에 傳統的인 社會民主主義 政党的 繼承者로 바뀔 可能性이 充分하다」^{註29)}고 展望한 바 있는 것이다.

이러한 西歐 「맑시즘」의 自由化 現象은 歐洲의 代表的인 知性的 「맑시스트」로 뽑히는 Ernst Bloch의 多樣한 作品內容이나 Garaudy, Althusser, Lefèbre, Ernst Fischer, Lombardoradice 등 有數한 「맑시스트」의 主張속에서 보다 明白히 表出되는데 이들은 모두가 「맑시즘」의 脫 終末論化와 脫神話化 傾向」(Tendenz zur Enteschatologisierung und Entmythologisierung)에 一翼을 擔當하며 특히 倫理的, 實存的 내지는 社會的 問題등 그간 「소비엘」式 官製的 「이데올로기」가 소홀히 했던 難題에 挑戰하는 勇氣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68年の 蘇聯軍의 「체코」亂入事態는 知覺있는 知性的

註 28 : Arnold Künzli, "Marxismus im Wandel", in Neues Forum (Wien Oktober 1967), 709.

註 29 : Herbert Marcuse, Die gesellschaftslehre des Sowjetischen Marxismus, Neuwied 1964. s. 225.

「맑시스트」의 분노를 자극하였고 이는 Ernst Fischer 등 著名한 「맑시스트」들의 党脱退까지 빚어냈다. 西歐 「맑시스트」들의 思想的 變化는 특히 인접한 東歐 知性들의 現實認識에 큰 刺戟과 活力을 불어 넣었다.

V. 東 歐

知識社會學的 巨匠인 Max Scheler는 「맑시즘」을 「下層階級」의 予言者的 「이데올로기」(Messianische Ideologie der Unter-Klasse)로서 定義하고 이는 上層階級の 「現在熟視」(Seins Betrachtung) 傾向과 對照되는 「未來熟視」(Werdens-Betrachtung) 傾向을 그 特徵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註 30) 이는 革命的 弁證法과 保守的 靜態主義間的 階級的 對立에 대한 社會學的 定義로서, 東歐의 一般의 狀況을 觀照할 때 「맑스」主義는 共產黨이 權座에 오른 후 下層階級の 「이데올로기」로 부터 점차 「새로운 上層階級の 「이데올로기」」(Ideologie einer neuen "Oberklasse")로 변모해 왔음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맑스」주의의 弁證法的인 「未來熟視」의 傾向이 保守的인 「現在熟視」의 傾向으로 뒤바뀌는 過程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56年 蘇聯의 「스탈린」格下를 계기로 「맑스·레닌」主義에 對한 單極的 解析權이 허물어지자, 東歐의 知性的 「맑시스트」들은 上層階級の 「이데올로기」로 變調된 「歪曲된 意識」(fals-

註 30 : Max Scheler, Die Wissensformen und die Gesellschaft, Bern. 1962, s. 172 ff.

ches Bewußtsein)에 對抗하여 「맑스」主義 本然의 立場에서 理想批判을 敢行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前衛的 知性들은 또한 여기서 한걸음 발전하여 「맑스」自身이 当代에 보지 못했거나 혹은 그당시 提擧되지 않았던 諸般 難題에 對한 解答을 求하는 問題에 까지 關心을 集注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맑시즘」의 「스탈린」的 獨占解析에 對抗하는 東歐의 이른바 多中心化(Polycentric) 運動은 「폴란드」에서 시작하여 「헝가리」, 「체코」 특히 「유고」에서 그 開花現象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東歐의 「이데올로기」的 解永은 近世의 啓蒙主義運動에 比喩될 수 있는 一種의 「맑스」主義의 「루네상스」로써 이는 비단 Georg Lukacs가 主張하는 「맑스」의 復歸 (Zurück zu Marx)가 그 目標가 아니라 「맑스와 함께 맑스를 超克하는」(Mit Marx über Marx hinaus) 改革的 意味가 強하게 含蓄된다. 이는 「스탈린」支配下에 쓰라린 經驗과 社會主義 發展에 對한 失意에 따른 知性的 反抗意識의 發展의 表現으로서, 이들 「맑시스트」的 啓蒙主義者들은 다음과 같은 問題를 認識하기에 이른 것이다.

階級을 超越하는 (Klassentranszendent) 倫理的이며 根本的인 問題가 存在한다. 즉 社會主義下에서도 人間疎外(Entfremdung)를 經驗하게 되며 그 壓力은 自由로운 天國의 約束으로는 輕減될 수 없으며 또한 「맑스」自身에게서도 助言을 얻기 힘들다. 官製的 「맑시즘」에 內在해 있는 歪曲된 意識은 그 自体로서 이러한 人間疎外의 要因이 되며, 科學的, 技術的 發展은 疎外의 새로운 形態로서 이는 「맑스」当代의 中心「테마」였던 勞動의 疎外(Entfremdung der Arbeit)보다 더 重壓的이다」註 31)

註 31 : Arnold Künzli, op. cit. s. 710.

「맑스」가 共産黨 宣言에서 분명히 「個個人的 自由로운 發展」이 「萬人的 自由로운 發展」의 前提임을 公言하였으나 個人的 人格의 共産主義的 目標追求 過程에서 無참히 犧牲되었으며 이는 특히 「스탈린」의 獨裁속에서 더욱 深化되었다. 이에 對항하는 「휴머니즘」의 社會主義 運動은 그 非「스탈린」의 解析에 力點을 두어 多元的 「맑스」解析의 全體를 總稱하는 概念으로 「네오 맑시즘」(Neo Marxism)으로 불리운다. 이러한 哲學的 變革의 몇 가지 제기를 살펴보면

① 1948年 「유고슬라비아」가 「콤뽀포름」을 脫退하고 反蘇路線을 걷게 된데서 始源하는 共産圈의 政治的 多中心化와 특히 1956年의 「스탈린」格下運動에서 비롯되는 官學的 「맑시즘」의 退潮現象 反蘇的 「民族共産主義」傾向과

② 「맑스」가 1844年 「파리」亡命 執筆한 「經濟學과 哲學」에 관한 「파리手稿」의 公刊(東獨 1955)

③ 「젊은 맑스」(Junge Marx) 研究의 先驅 Luckac의 修正主義와 Erich Fromm, Herbert Marcuse 등 既成 社會主義體制의 全面 否定을 서슴치 않는 西歐의 「네오 맑시스트」의 影響, J.P. Sartre 등의 西歐的 實存主義와 「카톨릭」左派의 「페르조널리즘」(Personalism) 등으로 集約할 수 있다. 註32)

이른바 「네오. 맑시즘」의 몇가지 特徵的인 断面을 抽出하여 보면 이는 우선 人間意識의 主体性的 認識이라는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다. 일찌기 社會主義的 「휴머니즘」의 先峰이었던 G.Lukac

註32: 申一澈, 네오. 맑시즘 과 「人間」의 問題, 知性(1971年 11月), p. 124.

는 1923年 그의 代表作「歷史와 階級鬭爭」(Geschichts und Klassenbewußtsein)에서 歷史속에서 發頭되는 人間意志의 能動的 主体性を 강조하고 「土台」로서의 客觀的, 社会的 存在보다 「프로레타리아」의 主体意識이 歷史의 原動力이 된다는 論旨을 펴므로써 俗化된 「레닌」主義의 「反映論」을 物象化 (Verdinglichkeit)라고 宣言해 버렸다. 그의 끈기있는 批判精神은 1950, 60年代를 거치면서 蘇聯型 「맑시스트」들의 環境決定論的인 官學的 唯物史觀에 의한 人間의 主体性 否認에 對抗하므로써 疎外된 人間意識의 再評價의 계기를 찾았다. 事實上 東歐의 反抗的 知性들의 反「스탈린」主義 運動의 根底에는 人間의 主体意識의 回復이라는 哲學的 命題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東歐知性들의 새로운 「맑스」解析의 口號的 絶叫은 무엇보다 그들의 「人間疎外論」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휴메니스트」였던 「젊은 맑스」에 대한 이들의 知的인 鄉愁는 人間疎外를 強要하는 「스탈린」的 敎條主義, 黨官僚主義에 對한 批判으로 발전했다. 社會主義 「휴메니즘」의 불길어 가장 강렬히 불붙은 「폴란드」의 젊은 知識人들은 이미 1954年에 反「스탈린」主義의 旗幟밑에 「새로운 社會主義 모델」을 만들어 民主主義的 自由回復의 綱領을 「보. 브로스토우」誌에 발표하므로써 東歐의 「네오. 맑시즘」의 첫 발걸음이 되어졌다. 註 33) 무엇보다 「폴란드」의 共產黨 (統一勞動黨)의 理論的 指導者였던 Adam Schaff는 그의 公的 立場에서 탈피하여 「폴란드」에도 硬化된 黨官僚主義에 의한 人間疎外가 있음을 宣言하고 그의 代表作인 「人間의 哲學」(Filosofia Człowieka)을 통하여 社會主義的 「휴메니즘」에 立脚한 修正主義的

註 33 : 前掲書 P. 122.

人間論을 폈다. E.Fromm 과 T.P. Sartre 의 影響을 받은 그는 階級的 「이데올로기」에 執着하므로서 人間不在의 哲學으로 轉化된 「맑스」主義의 虛點을 告發하며 그의 代表作中에 하나인 「맑시즘」과 個人」(Marxismus und menschliche Individuum)에서는 官學的 「맑시즘」의 禁忌로 되어 있는 「個人」의 問題를 哲學的 命題로 提起하므로서 黨的 官僚政治의 非人間化傾向을 攻駁했다.

역시 「폴란드」의 反「스탈린」主義的 修正主義哲學者인 Korakowski 등 이른바 「左派」들도 「스탈린」的 歐榮主義에 대한 비판으로서

- ① 方法論적으로는 正統派의 神學的 「루블」을 향해 비판했고
- ② 內容적으로는 歷史法則을 自然法則처럼 다루는 史的 唯物論의 歷史 神學的 化石化現象」註 34)을 들어 규탄하며 「全面的 人間解放」을 부르짖었다.

東歐知性들의 「네오·맑시즘」運動의 가장 劇的인 表現은 1969年 「체코」의 대표적 知識人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二千語 宣言」이다. 이는 「프라하의 봄」의 永繼化를 祈願하는 創造的 知性들의 運命的 絶斗로서 이는 「社會主義體制는 人間的인 것으로 만드는 일이 자기들의 目的이다」라고 宣言하고 言論의 自由야 말로 이를 위한 必須條件이라고 明示했다. 二千語 宣言作成의 主役의 한사람인 K.Kosik은 「체코」의 「휴머니즘」的 社會主義의 대표적 人物로 그는 東歐를 뒤덮은 「스탈린」主義的 非人間化의 危機를 哲學적으로 「全般的 操作可能性」(total manipulation)의 觀念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傾向을 深化시키는 技術的 知性的 體系에 對하여 批判的, 主體的 決斷을 通해 技術·万能 絶對化의 誤謬를 파괴할 수 있는 이른바 「弁證法的 理性」의 回復을 主張하고 있다. 註 35)

註 34 : 前掲書 p. 128.

註 35 : 前掲書 p. 133 ff

「베오·랍스」主義의 批判의 화살은 또한 党的 實踐的 意志가 모든 眞理의 基準이 된다고 보는 이른바 「党派性」理論으로 향한다. 党派性理論은 哲學을 비롯한 모든 知的 論争의 最終的 裁決權은 党에게 歸屬되어야 한다는 論理에 기초한 이른바 「体制的 「랍스」主義」의 表現인 것이다. 따라서 党派性理論에 立脚한 党的 意志는 例外없이 「프로레타리아」의 이름을 빌려 正當化되고 敎條化되며 모든 知的 活動은 政治(党)의 侍女로서 그 存在理由가 있을 뿐이다.

党派性 理論에 대한 가장 強力한 制度的 反撥은 「유고」의 이른바 「社會的 自營体制」(System der gesellschaftlichen Selbstverwaltung)로서 이는 上向的 意思形成 原則을 통하여 一党獨占体制의 留保下에 「프로레타리아」의 이름으로 恣行되는 獨裁形式을 內的으로 民主化, 自營化하려는 努力의 表現이다. 실제로 「유고」의 경우 國會(Skupschtina)는 党과 行政府에 대해 高度의 自律性을 유지하며 특히 이나라 特有의 聯邦体制로 인하여 權力の 過度한 集中化는 그어느 정도 制御되고 있다.

특히 1966年 10월 党改革으로 인해 党政治局은 단순한 執行機關으로서 中共委員會의 決意를 實施하는 機能만 부여 되었고, 政治局委員은 또한 이러한 行政府의 公職도 兼職못하도록 規定되었다. 따라서 党은 國家로 부터 分離되고 그 構造的 民主化를 통하여 종전까지의 命令機關에서 理念的 指導機關로 그 意味가 바뀌었다.^{註36)} 따라서 「벨그라드」의 党機關紙 「Borba」를 통하여 Nemanja Markoric는 「어떠한 党機關나 政治指導者도 自營的 意思形式過程에서 具體的 問題解決을 위한 어떤 見解를 가져야 할까를 다른 共產主義者에게 지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自營体制의 實現을 통

註 36 : Arnold Künzli, op. cit., pp. 711 ~ 712.

하여 우리는 어떤 共產主義者도 党的 指示의 단순한 執行者가 아니라
라는 結論에 到達했기 때문이다. 共產主義者도 자기 머리로 思考하
는 獨立的 政治的 個性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註37) 라고 力說하
기에 이른 것이다. 그에 의하면 自營的 社會主義는 國家的 社會主
義의 党派性理論에 對한 否定으로서 그 의미가 浮刻되는 것이다.

이미 소개한 「폴란드」의 Korakowski의 「知的 맑스主義」의
立場도 敎條主義的 党派性理論의 否定에서 그 論理의 起點이 발견된
다. 그에 의하면 「어느 「맑스」 解析이 「맑스」主義的이냐의 判定은
전적으로 一般的 方法論的 前提를 基準」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
며 實證的 資料의 重要性을 강조한다.

東歐의 「네오·맑시즘」의 底辺에 흐르는 潮流는 「社會主義에의
多條한 路」이다. 즉 蘇聯型 社會主義路線만이 絶對性을 띤것이 아
니라 「自國原則」의 妥當性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써 民族主義의
意味가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고의 前衛的 理論家들은
「맑스」主義의 「脫神話化」(Entmythologisierung) 내지 「脫終
末論化」(Enteschatologisierung)에 앞장을 서므로 이른바 「맑
스의 타부」(Tabu Marx)의 除去를 통한 自由로운 「맑스」解析이
강조되고 자연 社會主義에로의 「唯一한 路」은 唾棄되는 것이다.

東歐社會에 아직도 殘有하는 「스탈린」主義的 敎條主義와 制度的
遺制에 對한 東歐知性들의 抵抗과 아울러 東歐의 青年文化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社會의 抵抗的 知性文化의 風
土와 青年文化의 內容과는 항상 밀접한 關係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Zbigniew A. Jordan은 東歐 특히 「폴란드」의 青年文化를 分析

註 37 : Praxis, Zagreb (Serbokroat. Ausgabe), Nr. 1, 2,
1967. s. 34.

하며 論文執筆當時(1964年) 16~24歳の 青少年 年齡集團(現在 年齡 25~34歲)과 餘他の 年齡集團間의 격심한 文化的 隔差에 非常한 關心을 集中시킨다. Jordan에 의하면 이들 年齡層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音樂趣向, 性行態나 Marek, Hlasko 등으로 대표되는 Black Literature의 內容에 있어 当代 歐美의 angry young men과 親和性이 깊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브로쥬아」의 原規나 規範的 傳統에서도 「맑스」主義 理念이나 實際 行態에서도 그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며 결국 世界를 否定하는 異議論者(nonconformist)로서도 「退去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withdrawl)를 標榜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知的 基準이나 文化的 業種의 評價에 別로 관심을 두지 않고 本能에 큰 價值를 부여한다. 그들은 이미 그들 自身과 自身들을 絶望과 無秩序, 無責任으로의 轉落케 하는 世界에 대한 수많은 神話를 創造하고 있다.

이들의 立場은 旧來의 或은 새로운 社會秩序中 어느것에 内在되어 있는 價值도 否定하고 이들중 어느것을 提高하는 일에도 함께 협력하기를 굳게 거절한다는 것이다.」^{註38)} 이렇듯 疎外化된 青年文化는 東歐社會의 社會的 連續性(Social Continuity)의 立場에서 볼 때 一種의 危機로 받아 들일 수 있는 形편이다.

東歐 青年文化의 疎外的 性向을 解明하기 위해 以下의 몇가지 要因을 分析할 필요가 있다.^{註39)}

① 이들 젊은이 들이 느끼는 家族價值와 그 定向이 公式的 共

註38 : Zbigniew A. Jordan, "Alienation and Withdrawl Among Polish youth," in Alvin Z. Rubinstein(ed), op. cit. 350.

註39 : Ibid., pp. 352 ~ 353.

産主義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조되는 家族価値 내지 그 定向과 偏差가 크다. 이러한 偏差에 의해 惹起되는 不可避한 緊張은 權力의 專制的 行使, 이의 私的 領域에의 浸透, 家族의 教育機能에 對한 干涉등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社會構造內에서 家族役割의 점차적 減少는 思春期로 부터 成人期로의 轉化에 있어서 적지 않은 問題를 惹起시키며 家族外的 機能과 活動에의 適應을 阻害시킨다.

② 社會적으로 公認된 目標成就手段에의 接近에 있어서의 심한 偏差는 規範的 無定向性 (normative disorientation) 을 深化시키고 이는 疎外化를 자극한다.

③ 社會主義의 共產主義的 價值體系와 個人主義的 價值體系間의 緊張은 青年文化를 갈등상황에 沒入시킨다. 특히 勞動者의 이름으로 黨的 支配를 鞏固히 하는 「國家主義」(Statism)와 個人의 主體的 自由를 渴求하는 青年文化의 批判的 要素間의 相衝이 그것이다.

Peter Veres 는 「헝가리」의 경우를 예로 하여 비단 知性文化나 青年文化에 限定되지 않은 大衆的 疎外文化를 「無關心」(indifference) 이란 語彙로 表現하고 이러한 關心의 缺如現象을 虛脫感의 (Letharty) 立場에서 社會主義初期의 「메시아」적 情熱過剩의 後遺症的 精神狀況으로 파악하고 특히 그 無政治的 (Apolitical) 心理를 重視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東歐의 人間疎外的 精神狀況은 무척 심각한 形勢이며 이에 對한 知識人의 創造的 抵抗意識, 疎外속에서 退去의 「이데올로기」에 執着하는 青年文化, 無關心으로 點綴되는 大衆文化등은 機能的으로 서로 연관되는 것이다.

VI. 小 結 論

本章에서 論議된 바를 集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다 發展된 共產主義體制에서 知識人 集團에 의하여 제기되는 政治的 異議의 雲源은 주로 党, 國家官僚體制로 구성되는 政治體 (Polity) 와 分化된 多樣한 制度的 諸領域을 포괄하는 社會 (Society) 間的 緊張關係에서 비롯된다. 夫 社會의 構造的 分化에 따른 專門化된 諸分野는 계속 自律性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政治體는 「Centralist-Command Mode」에 따라 이들 社會的 諸分野에 대한 強壓的 統制만을 일삼고 이는 專門的 知識人의 異議噴出의 계기를 마련한다. 따라서 共產主義體制도 複合社會的 特性이 나타남에 따라 社會統合의 難關에 부딪친다.

② 共產社會에 있어서 批判的 知性文化의 폭과 깊이는 주로 그 社會의 傳統的 知性文化의 尊重과 外來思潮의 影響力 및 政治的 指導體系의 知識人觀, 知性文化觀등에 의존한다.

③ 知性文化는 그 社會의 青年文化와 密接히 연관된다. 反體制的 知性文化는 青年文化를 刺戟하고 이를 통해 大衆文化와 연결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青年文化의 批判的 내지는 疎外的 屬性이 知性文化를 先導하기도 한다.

④ 일반적으로 共產社會의 御用的 立場에 따르면 知識人 階層을 그들의 公式的인 階級的 範疇속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그 實存을 부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들은 知識人 特有的 「인텔리겐차」的 批判精神과 「부르조아」的 生活意識에 反撥하나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이들을 動員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들은 知識人 概念定義에 있어서 가능한한 「인텔리겐차」 本來의 文化的 概念構

成을 피하고 이를 단순히 精神勞動者라고 規定하고 있다.

⑤ 体制批判的 知識人들을 두가지 類型으로 나누는 경우 「Insider」와 「Outsider」로 分類할 수 있다. 前者는 体制속에서 그들의 專門的 權威에 의하여 高位職을 占有하며 体制發展에 寄與하는 立場이나 体制의 歪曲된 方向設定과 活動樣態를 指摘, 批判하는 類型인데 반하여 後者는 体制外的 存在로서 反体制的 聲討의 第一線을 도맡고 있는 類型이다. 우리가 一定한 共產社會에서 「Insider」나 특히 「Outsider」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다면 그 社會는 이미 知識人들의 活動에 대해 얼마간의 自由가 容認된 實容的 知識人, 政策을 펴고 있는 社會이다.

狀況의 變遷에 따라 「Insider」가 「Outsider」로 轉化될 수도 있고 또 그 逆의 關係도 생각할 수 있다.

⑥ 技術的 知識人(專門的行政, 經營官僚, 技術者, 自然科學部門 종사자)과 創造的 知識人(作家, 藝術家, 社會科學部門 종사자)으로 知識人을 大別하는 경우 前者에 비해 後者가 더 体制批判的인 蓋然性이 높다. 따라서 後者中에 「Outsider」가 쉽게 發見되는데 반해 前者의 대략적으로 体制忠誠的이거나 최선의 경우 「Insider」로 活動한다. 그러나 批判的 知性文化의 質的 深化와 量的 擴散의 程度에 따라 技術的 知識人들 특히 自然科學部門 종사자들이 「Outsider」로 轉化되는 경우도 흔히 찾아진다.

⑦ 体制內的 社會變動의 可能性으로써 技術的 知識人의 範疇에 속하는 專門的 行政, 經營官僚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Expert」로서 党性(政治性)이 강한 政治 「엘리트」集團 (「Red」)과는 구별되나 이들은 자신들이 갖춘 高度의 專門的 技術形式能力때문에 社會發展에 따라 政治權力의 中核機構에 參與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体制形式 (System Building) 期에는 「 Red 」의 比重이 강조되나 体制管理 (System Management) 期로 접어 들에 따라 「 Expert 」의 役割이 重視된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政治的 激動期에는 「 Red 」의 威勢가 강하나 政治的 安定期일 수록 「 Expert 」의 需要가 增大된다.

이들 專門的 行政, 經營官僚들은 産業社會의 合理的 慣行을 體質化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最高政策決定機構에 參與하는 경우, 一種의 「 Insider 」로서 漸進的 体制變革에 寄與할 수 있다. 다만 政治的 理念에 執着하는 「 Red 」들과의 利害相衡을 어떻게 克服하느냐가 問題의 關鍵이다.

⑧ 일반적으로 보아 創造的 知識人類型의 人物들이 上腐 政策決定機構에 參與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또한 이들 類型의 知識人들은 批判的 知性文化의 가장 正統的 繼承者로서 反体制的 性向의 「 Outsider 」化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東歐의 体制 批判的 知識人들의 体制批判的 異論의 主要爭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 맑스-레닌 」主義 解析의 多元化
- ② 歷史속에서의 意識의 積極的 役割
- ③ 黨僚主義, 「 프로 」獨裁, 社會的 割一主義, 國家主義에 의한 人間疎外에 대한 抵抗
- ④ 「 社會主義에의 多樣한 路 」 「 自國原則 」
- ⑤ 黨派性 理論의 拒否

이러한 思想的 潮流의 低流에는 「 젊은 맑스 」를 찾는 「 社會主義的 휴머니즘 」이 잘려 있으며, 이들 知性文化는 새로운 疎外世代

인 共産社会의 第二世들의 青年文化를 刺戟한다. 또한 이러한 思潮는 社会的 集團主義的 人間觀, 家族觀, 社会觀, 國家觀에 對하여 個人 및 家族 내지 民族的 價値의 再發見과 封的 自由의 渴求 등으로 表出되며 이러한 過程에서 大衆文化와 連結된다.

⑨ 共産社会에서 批判的 知性文化가 政治的 指導體系를 刺戟하면 이는 順反應과 逆反應을 肯定的으로 받아 들여 이를 體制內的으로 消化, 變化의 계기를 만드는 例이고 後者의 경우는 知性文化의 彈壓을 통한 異議의 統制이다. 後者의 경우 政治的 指導體系는 知識階層과 大衆과의 敵代意識을 助張시키고 그것을 社会的 神話로 操作하므로써 이들을 大衆으로 부터 絶緣시킨다. 前者 즉 順反應의 경우도 反體制的 「 Outsider 」는 容納될 수 없으며 이는 「 Insider 」와 隔離, 疎外시키는 戰略을 驅使한다.

일반적으로 獨裁的 「 퍼서넬리티 」 類型的 指導者는 自由로운 知性文化의 噴出을 그 崩芽로 부터 짓밟으나 集團的 政治指導體系에서는 知性文化의 活動半徑이 넓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때 政治的 指導體系의 性格이 批判的 知性文化의 生長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⑩ 이상의 論議를 다시 綜合하고 小結論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共産主義體制의 경우도 그 社会가 發展하고 構造的 分化를 거듭함에 따라 專門化된 各異한 制度的 領域은 自律性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을 政治體에 대한 壓力要因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空히 批判的 知性文化에 의하여 代表되며 이에 대한 政治體의 反應樣態에 따라 知性文化의 生長條件은 결정된다.

批判的 知性文化가 民主的 社会變革의 계기가 되기 위한 最善의 條件을 例擧하면 다음과 같다.

- ㉠ 社会發展의 高度化와 産業社会의 文化的 特性의 一般化
- ㉡ 実容的 知識人觀을 가진 政治指導体系
- ㉢ 体制의 開放을 통한 外来思潮와의 交渉
- ㉣ 批判的 知性文化의 伝統
- ㉤ 知識人階層의 政治的 意思決定에의 参与 可能性
 - (i) 특히 專門的 官僚(行政, 經營) 「엘리트」의 政治(權力) 「엘리트」로의 轉化可能性과 「Intraelite, Bureaucratic Politics」의 가능성
 - (ii) 學門研究, 創作, 發表의 自由, 文學, 藝術의 自律性, 知識人들의 集團利益에 대한 政治的 配慮
- ㉥ 知性文化, 青年文化, 大衆文化의 連結과 이를 통한 共通의 廣場構築
- ㉦ 政治的 指導体系의 自己變化意志

第四章 北韓 知識人階層의 意識狀況

I. 北韓의 政治的 階層構造와 「인텔리겐차」의 社會的地位

북한 社會의 階層分類에 있어 가장 중요한 變數는 事實상 「党性」(政治性)에 의한 階層分類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政治的 階層化(Political Stratification) 現象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그 含蓄的 意味는 非共產世界에서의 概念定義와는 判異하다. 즉 북한과 같이 政治的 價值가 絶對적으로 優先視되는 社會에서는 政治性的 公式的 認定은 政治的 價值는 물론 余他的 모든 社會的 價值配分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權威的으로 示唆하는 것이다.

이들 階層構造上 最上位에 있는 것은 黨員, 諸種의 「共產鬭爭者」 및 軍, 行政幹部들로서 이들은 이른바 「核心階級」을 이루고 있다. 社會的 出身成分이라는 극히 帰屬主義的 基準과 黨에의 忠誠度 등을 중심으로 充員되는 이들은 북한 住民의 28%에 해당하는 人口群이다.

다음 두번째 社會階層으로는 核心階級에 속하지 못한 일반 勞動者, 農民들로 구성되는 이른바 「基本階級」이다. 1970年末현재 이들 基本階級에 포용되는 人口數는 全 북한주민들의 21%로 推定된다.

다음 이른바 「複雜한 群衆」내지 「非基本階級」으로 불리우는 集群은 북한 社會의 底辺을 형성하고 있는 多樣한 構成의 階層이다. 「複雜한 群衆」으로는 階級的 性向이 의심스러운 階層(과거 地主, 資本家, 宗教人, 知識人 및 그 家族), 前職 官公吏, 6.25를

제기로 政治的 性向이 의심스러운 階層 (越南家族, 治安隊加入者, 귀환포로 등) 내지는 社会道德的 면에서 과오를 범한 階層들을 들 수 있다. 이들 階層中 反革命要素集團은 포섭 및 教養對象者, 監視對象者 내지는 制裁對象者로 三分類되어 社会生活은 물론 個個人的 私的 生活領域에 까지 完全한 規制를 받고 있는 것이다. 1970年末 북한의 社会安全省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社会的 非基本階級 (獨裁對象階級)의 人口를 住民 총수의 51%로 보고 있다,

이렇듯 북한에 있어 階層을 規定하는 決定的 要因은 權力構造의 接近度라는 唯一變數일 뿐 더러 여기에 歸屬主義的 屬性 (예컨대 「프로레타리아」性)이 크게 작용하므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社会的 成長의 가능성은 閉鎖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註1)

이러한 環境的 与件속에서 解放이후 북한에 旧「인텔리겐차」들의 運命은 실로 逆境의 連続이었다. 왜냐하면 旧知識層의 큰 부분이 이른바 階級的 性向이 의심스러운 階層 (과거 地主, 資本家, 宗教人) 出身이었을 뿐더러 이들 階層에 대한 共產主義者들의 理念的 不信任은 거의 不治에 이르렀던 것이다. 解放直後에는 「平壤芸術文化協會」와 같은 純粹文學, 藝術人集團도 結成되는 등 組織的 文化活動도 생각하였으나 곧 御用的 文化集團에 의해 吸收되어 버리고 元來 共產主義運動에 心醉되었던 一部 知識人을 除外한 대부분의 「인텔리겐차」들은 共產暴權속에서 迷의 歷程을 경험해야 만 했다.

특히 社会的 出身成分이나 經歷上 瑕疵가 있는 知識人들, 특히 創造的 知識人들의 경우 辭請등 社会的 價值剝奪을 통한 暴圧은

註1 : 안병영, 북한사회의 변동가능성과 자유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1972, pp.66~67

가위 想像의 정도를 넘었다.

다만 技術的 「인텔리겐차」들의 경우 所謂 社會主義的 建設의 必要性 때문에 部分的으로 動員, 利用되었으나 社會的 上向可能性에 는 限界가 있었다. 따라서 過去에 共產主義運動의 經驗이나 社會的 背景上 強점이 있는 一部 知識人階層들 만이 실제로 體制內的인 社會的 成長이 가능하였고 이들중 큰 부분은 또한 肅請등 派閥싸움의 渦中에서 轉落의 손잔을 마셨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 體制에 寄生하는 一部 御用知識人을 제외한 旧「인텔리겐차」의 적지 않은 部分은 위에서 설명한 政治的 階層 構造上 第3階層인 「非基本階級」에 속하며 현실적으로 이들의 社會的 權威는 매우 劣等한 形편이다. 북한 當局은 그간 이른바 「낡은 인테리」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표명하여 왔으며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包摂, 敎養, 監視등의 수법을 驅使하여 왔다.

그그間 북한當局은 社會主義的 敎養을 갖춘 새로운 「인테리」養成에 큰 힘을 기울여 왔고 이들은 이미 數的으로 旧「인텔리겐차」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인테리」에 대한 党的 信賴는 완전한 것이 못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統制는 날로 苛烈化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批判的 知性文化의 傳統的 基盤이 별로 높지 못한데 다가 外來思潮의 引入이 거의 不可能한 狀態이므로 党的 知識人集團에 대한 過度한 統制政策과 思想敎養등 극심한 洗腦工作은 創造的 知性文化의 성장 가능성을 그 崩芽부터 짓밟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은 政治的 階層構造上 疎外集團으로 轉落된 旧「인텔리겐차」와 그들의 第二世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当世代的 疎外集團의 上向의인 社会的 移動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後世代(疎外階層의 第2世)의 경우 充員基準의 硬直性은 훨씬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疎外集團의 世代的 拡散을 북한의 支配層도 政策的으로 最少化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냘픈 가능성은 이들 젊은 世代的 現体制에 대한 過剩的 同調行爲를 자극할 것이다. 예컨대 父母에 대한 批判的 態度, 보다 낮은 階層의 배우자 選擇(물론 대개의 경우 黨에 의해 規制된다) 가입이 가능한 黨의 外廓團體(少年團, 社勞總 등)에서의 熱性的 奉仕등이 그 方法일 수 있다.

「쏘련」의 예를 보면 1917年 共産革命當時 별로 反体制的 性向이 강하지 않으나 그들의 社会的 背景때문에 疎外된 上類階層出身의 知識人, 專門職, 從事者들의 경우, 그들의 第二世는 「쏘비」体制에 대한 同調的 行爲로 인하여 다시 社会的 上層階層인 專門職 從事者(經營官僚, 科學者, 教授, 醫師, 技術者)로 充員되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旧「러시아」帝國의 疎外階層(小作人, 農奴, 勞動者)들의 第二世들이 강력한 「프로레타리아」性을 바탕으로 權刀追求의 기회를 찾는 性向이 컸음이 經驗的으로 証明되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階層構造가 보여 주는 극단적 歸屬主義的 屬性은

- ① 当世代的 社会的 流動性은 容認하지 어려우나
- ② 後世代的 部分的인 社会的 流動性은 認定되고
- ③ 이는 새世代的 同調行爲를 자극하여 機會主義的 人間化를 촉진할 수 있다.

結論的으로 볼 때 북한의 이른바 새로운 「인텔리겐차」階層中 그

대부분은 第一階層(核心階級)과 第二階層(基本階級)出身일 것으로 推定되며 非政治性을 띤 專門的 技術職에는 第三階層出身도 部分的으로 充員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경우 知識人내지 「인텔리겐차」의 概念은 傳統的인 知性 文化의 遺産과 연관되는 文化的 概念이라기 보다 精神勞動者의 代名詞로서의 이해되고 있으며 現段階로서는 「Outsider」類型은 물론 「Insider」類型的 體制批判的 異議는 期待하기 어렵다.

북한의 強壓的 文化政策의 좋은 표본으로는 共產主義體制에서도 그 例를 찾아 보기 힘든 극단적인 言語抹殺政策이다.

북한當局은 이미 1972年 부터 海外留學生派遣을 통제하여 外來的 先進思潮의 북한으로의 移入을 막기 위하여 安간 힘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도 外的 環境과의 접촉에 따른 知識人의 開眼, 이들의 批判的 異議의 등장, 社會發展에 따른 政治體와 社會間의 不和 등의 難題가 拾頭될 素地는 충분히 안고 있다. 이하의 節에서는 북한의 知識人階層(新·舊포함)을 크게

- ① 專門的 行政, 經營官僚
- ② 技術者, 專門家
- ③ 學 界
- ④ 文學, 藝術分野

등으로 分類하고 이들 個個 專用의 意識狀況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I. 專門的 行政經營官僚

北韓의 경우 지난번 第5次 黨大會에서 選출된 中央委員數는

正委員 117名, 候補委員 55名 합쳐서 모두 172名이다. 우선 党中央委員會 正委員만을 對象으로 하여 이들을 專門性和 政治性이라는 變數를 중심으로 그 構造的 特性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序列 1位~11位 (政治委員會 正委員)

政治性優勢

② 序列 12位~22位

專門性優勢

③ 序列 23位~58位

政治性優勢

④ 序列 59位~117位

專門性 + 政治性

위의 階層構造속에서 밝혀 지듯이 党政治委員會 正委員으로 구성되는 第1階層의 後統階層인 中央委 序列 12位부터 22位까지의 「구룹」은 專門的 課業 「엘리트」 (Tast Elite) 의 範疇에 속한다. 특히 이들 第二階層에 속하는 政治 「엘리트」中 序列 12位부터 16位에 있는 玄武光, 鄭準汎 (근), 陽亨燮, 金万金, 李根模는 政治委員會 候補委員이며 이중 玄武光, 陽亨燮 및 序列 17位の 延亨燮은 秘書局 秘書이다. 또한 第二階層 11名中 屬性이 다른 序列 20位の 崔勇進을 除外한 10名 全員이 中央人民委員會委員이며 이중 鄭準汎 (근), 金万金, 崔載羽, 南日, 洪元吉이 政務員 副總理이다. 이들은 또한 자기의 專門分野에 따라 党的 部長 (玄武光-重工業部長) 내지 政務院의 委員長 (玄武光-交通委委員長, 金万金-農業委員長, 崔載羽-國家計劃委委員長, 南日-輕工業委委員長, 洪元吉-機械工業委委員長) 職을 兼任하고 있다.

이처럼 화려한 各樣의 專門的 機能을 수행하는 이들 階層은 그

들의 政治的 抬頭가 무엇보다 第1階層인 權內 「엘리트」의 政治的 信任에 基礎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때 이들이 얼마나 政治 權力에 예민한 反應을 보일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解放前 共產主義의 偏向이 강했던 旧「인텔리겐차」階層으로서 權力「엘리트」의 부족한 專門的 政策能力을 補完하며 發展目標施行의 行政的 上位責任者로서 權力「엘리트」에 寄生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政治的 成長의 限界線上에 도달했으며 頂上級 權力 「엘리트」(예컨대 政治委員會 正委員)로의 轉化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黨 政治委員會에서는 第1階層과 第2階層은 正委員과 候補委員으로 峻別하고 있으나 보다 專門的 政策討議가 필요한 中央人民委員會에서는 두 階層은 形式上 區別없이 함께 參與하고 있다.

여하튼 이들 階層의 두드러진 進出은 북한 政治「엘리트」의 屬性變化의 가능성을 予示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註2)

북한이 이처럼 權力의 中流가까이에 正規教育과 비교적 높은 專門的 管理能力을 갖춘 새로운 政治「엘리트」類型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經濟發展이라는 그들이 當面하고 있는 政策目標의 表現을 위한 執念의 표현이기는 하나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體制形成期를 지나 體制管理期로 접어 들었다는 사실을 投影하며 또한 급격히 變化하는 社會變動, 특히 大規模의 動員期를 거쳐 점차 相對的 安定期로 進入하고 있다는 例證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다만 이들 類型의 政治「엘리트」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부과된

註2 : 안병영, 北韓政治的「엘리트」의 構造分析, 亞細亞研究(50号) 1973.10. 草稿

각종의 專門的 政策의 形式이나 그 執行이 실패하는 경우 이의 政治的 責任까지도 지지 않으면 안된다.

叙上한 第3階層(政治的優勢, 「게릴라」出身 政治的 理念派) 및 第4階層(政治性優勢, 軍事「엘리트」)에 뒤이은 第5階層(序列 59位-117位)은 全 中央委員 正委員의 過半을 차지하는 群集으로 그 중 대부분이 이른바 後革命世代로 第5次 党大會이후 進出한 新人派이다. 이들은 党 및 國家官僚體制의 下位水準에서 建設 事業, 農業經營, 輕工業管理 및 企劃業務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어느정도의 專門性을 具有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金英柱와의 政治的 親和性이 깊은 權力指向型의 類型으로서 결국 이들은 專門性和 政治性을 아울러 갖추고 있는 새로운 「엘리트」充員形式의 좋은 实例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때 북한에 있어 專門的 管理能力은 官僚「엘리트」充員에 있어 중요한 基準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 이들 專門的 官僚들은 漸次的으로 權力「엘리트」로 成長하고 있음을 본다.

다만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이미 북한의 政治的 階層化 現象을 論議하며 言及된 바이나 官僚내지 政治「엘리트」로 成長할 수 있는 類型의 人間들은 그들의 社会的 出身成分으로 보아 적어도 基本階級出身이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자신의 政治性을 그들의 社会的 背景이나 經歷을 통하여 確証한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體制가 安定됨에 따라 현재의 북한의 階層構造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歸屬主義的 屬性은 차츰 약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社会的 背景이 약한 階層의 社会的 上向可能性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政治的 理念이 重視되는 頂上級 政治指導體系의 경우 政治性이 약한 專門 官僚들의 投入可能性은 現在로서는 희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專門的 教育을 履修하고 行政管理의 合理的 行態를 體質化한 이들 類型의 知識人들이 主要한 政策決定過程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가 漸增하고 있다는 사실은 體制의 內的 體質改善의 可能性과 이에 따른 社會變動의 可能性이 엇보인다 하겠다.

위에서 주로 頂上級 官僚「엘리트」層에 主眼點을 두어 論議하였다. 이들중 큰 부분은 黨이나 行政官僚로서 階層的 成長을 한 類型이나 예컨대 叙上의 第二階層에 속하는 洪元吉과 崔載羽는 오히려 國家企業에 종사하다 발탁된 비교적 순수한 經濟支配人 類型의 經營官僚出身으로 앞으로 이러한 類型의 進出이 현저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洪元吉—德川 自動車工場 支配人—1960年— 崔載羽—淸津鐵道支配人—1954年)

북한에 있어서는 近年에 들어 全体主義的 動員目標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사용해 온 強制性和 規範性 (例: 思想教育) 一刃倒의 立場에서 점차 탈피하여 報酬의 문제와 같은 功利的 誘因과 經營管理의 改善 및 人間關係의 要因등을 重視하는 등 體制運營에 있어서의 能率의 問題에 깊은 關心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消極的 變異의 徵表로서 이해할 수 있다.

Ⅲ. 技術者 專門家

북한은 經濟發展이라는 移轉文化目標의 成就手段으로 계속하여 技術革命을 提唱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이 全面的 技術再建을 기본으로 했던 7個年計劃에서 機械製作工業에 刀點을 두

있던 것도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며 전기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등 기술혁신의 모든 문제가 결국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북한은 특히 1970年이래 이른바 三大技術革命(重勞動과 輕工業 부문의 차이를 없애고 工業勞動과 農業勞動과의 差를 좁히며 女性을 부역으로 부터 解放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그들 特有의 技術教育體系를 이용하여 技術과 專門家 養成에 큰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生産增加를 위한 勞動刀이 모자라서 勞動集約的인 데서 資本集約的體制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 있어 技術者 및 專門家들의 數的 增加狀況은 다음과 같다.

◎ 技術者 및 專門家數

區 分 \ 年 度	1953	1957	1960	1961	1962	1964
技 術 者 및 專 門 家 總 數	21,872	73,358	133,466	161,310	183,117	293,504
技 士	1,837	5,860	11,991	16,220	21,446	43,544
技 手	6,763	22,429	57,978	66,493	76,662	136,250
專 門 家	-	15,410	26,005	36,237	44,011	66,347
中 專 門 家	73,273	29,659	37,492	41,910	40,998	47,365

資料： 朝鮮 中央年鑑, 조선중앙통신사 1965.

北韓當局은 또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技術教育을 통하여 이를 共產主義的 世界觀 形成에 이용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즉

이들은 自然現象의 物象的 因果關係를 社会現象에 까지 造張하여 그들의 唯物論的 立場을 굳히는 一方, 人間의 知的, 意識的 側面的 立体的 創造性和 自由追求의 努力을 輕視하는 傾向을 注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技術者 내지는 專門家들의 合理主義的 愼行과 分析的 態度는 政治的 理念에 執着하는 政治的 指導層과는 異質的인 意識狀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IV. 學 界

북한에 있어서 學術에 대한 總指揮部署로서 勞動黨 中央委員會 科學 및 學校教育部, 高等教育省 科學研究部, 普通教育省 科學研究部 등을 例拳할 수 있으며 公式的 學術研究機關으로서 科學院, 社會科學院, 農業科學院, 醫學科學研究院 등이 그 主軸을 이루고 있다.

또한 學者들의 研究課題는 國家計劃委員會에서 研究計劃이 승인되고 필요한 研究資料와 費用을 供給받고 國家課題를 비롯하여 一名, 「省課題」로 불리우는 契約課題 및 大學 또는 研究所 評議會에서 承認된 課題로서 自体課題가 남아 있다. 註3)

1960年代 末을 기준으로 할때 북한의 大學敎員들의 學閥을 보면 日政時期 大學 및 專門學校 卒業者인 이른바 旧「인테리」出身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새로운 「인테리」에 속한다. 즉 이들 중 가장 「낡은 思想殘」가 많다고 지목되는 소위 「日帝派」, 8.15 이후 북한에서 교육을 받은

註3 : 北韓總覽 (文化編) , 國土統一院, 1971, p.11

이른바 「国内派」, 8.15 이후 「쏘련」을 비롯한 東歐 共產國家에서 教育을 받은 「留學派」가 그것이다. 이 중 共產黨의 信任은 「留學派」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近年에 귀국한 「留學派」들에 경우 이들의 思想 및 行態는 黨의 注視下에 있다.

비율로 보면 「日帝派」가 20%, 「国内派」가 65%, 「留學派」가 15%이며 이들間 적지 않은 暗鬪가 벌어지고 있다. 年齡集團別로 보면 25 - 35 歲가 過半을 차지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註4)}

學界의 動向中 「쏘련」 및 東歐의 경우 이들 分野의 從事者들은 創造的 知識人의 範疇에 속하며 그 社會의 批判的 知性文化를 대표하는 哲學 및 歷史學界를 중심으로 考察해 보고져 한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哲學은 黨의 「맑스-레닌」主義的 解析的 論述를 제공하고 黨의 思想教育을 위한 手段的 寄與를 하는데 급급하며 歷史學界는 國史를 唯物史觀的立場에서 照明하되 그때 그때 政治的 指導體系의 趣向에 맞는 解析을 붙이기에 바쁜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 속에서도 批判的 知性文化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哲 學 界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10주년기념 논문집」에서 北韓의 代表的 黨理念家인 황장엽은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사물은 모순의 통일체이다. 이 모순의 통일체가 자기를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재의 통일을 부정하고 자기의 통일을 부정하는 새로운 대립들의 투쟁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전된것, 선진적인

註4 : 北韓總鑑, 共產黨問題研究所, 1968, p.567

것은 항상 역사적 제한성을 가진 따라서 상대적으로 새 것이며 상대적으로 발전되고 선진적인 것이다. 어떤 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사물발전의 상승적 성격, 부정의 부정의 법칙에 위반한다」^{註5)}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른바 奴隸制度, 封建制度, 資本主義制度의 3단계의 階級社會를 거쳐 이룩된 社會主義社會가 그 自体로서 絶對化의 誤謬를 범하지 않고 否定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다른 飛躍을 찾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극히 曖昧한 대답을 제공한다.

「발전은 3단계로 완성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가령 보리알의 예를 들면 그것은 매년 그 과정을 계속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원시 공산사회, 계급사회, 사회주의사회의 변화는 또 다시 이와 같이 될 수 없다.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또 자기를 부정하며 또 다시 사적 소유에 기초한 계급사회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사물은 반드시 자기의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진리이다.

이 일반적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가는 매개 사물에 따라서 각이하다. 우리들의 예들은 모두 발전에서 부정의 부정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데 불과하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의 발전의 성격을 분석한 것이다. 무조건 평등을 기초한 원시공산사회, 계급사회, 사회주의사회와 같은 순서로 앞으로도 사회발전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는 일단 완성되어 버릴 수도

註5 : 황장엽, "부정의 부정의 법칙",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10주년 논문집, p.29

있는 것이다」註6)

矛盾투성이의 論理展開속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事物發展의 基本定式인 否定的 否定的 原理가 共產社會의 完成後 그 適用對象을 喪失하기에 이른다는 自家撞着的 解析이다.

북한 哲學界의 代表的 論争의 하나는 이른바 1956~58年 頃の 「土台와 上部構造」에 관한 論争으로서 이 論争은 이후 文學界에도 부분적으로 파급이 되었다.

즉 Lenin의 素朴한 反映論에 따른 「意識은 有存의 反映에 불과하고 고작해서 近似的으로 正確한 反映에 지나지 않는다」는 命題는 人間意識의 主体性에 대한 挑戰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論争은 「쏘련」 및 東歐 哲學界에 있어서 1950年 代의 主要 争点이었다. 「쏘련」은 非「스탈린」化의 激流에 힘입어 1958年 새로 修正된 哲學敎程인 「맑스主義哲學의 基礎」에서 「上部構造의 能動的 役割」이란 새項目을 삽입함으로써 이 問題에 대한 自己修正的인 發展的 立場을 굳혔다. 註7)

사실상 「맑스·레닌」主義의 客觀的 社會的 存在方式 내지 經濟一元的 決定論은 人爲的인 社會變革 내지는 職業的 革命家의 實踐力을 강화한 階級鬪爭論과 論理的 矛盾에 빠지고 經濟決定論은 엄격히 해석할 때 經濟的 土台에서 資本主義的 要素만 제거하면 上部構造인 「이데올로기」는 자연 共產主義國으로 화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미 토대가 마련된 북한의 경우 強壓的 「이데올로기」敎育을 통한 意識變更의 施圖는 自己矛盾이 아닐 수

註6 : 前掲書, p.139

註7 : 北韓總鑑, 前掲書, p.605

없다.

북한의 労働党은 이러한 哲学論争이 가진 現實的 問題性에 감안하여 1960年 土台의 反映으로서 上部構造가 形成되지만 形成된 上部構造는 土台에도 反作用한다고 해서 적당히 얼버무리 놓고 論争을 中斷시켰다.

북한 哲学界의 論争点의 하나는 「맑스」 이래 불붙는 소위 「過渡期」와 「프로레타리아」獨裁의 時期的 区劃에 대한 問題이다. 이에 대해 金日成은 1967年 5월에 행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라는 題下에서 有權的 解析을 내리고 있다.

金日成은 序頭에서 이들 문제는 「주체사상에서 출발하여 풀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古典의 命題들은 그것이 나오게 된 「時期와 歷史的 環境」을 고려하지 않고 援用할 수 없음을 되풀이 하며 「過渡期」와 「프로레타리아」獨裁에 관한 「맑스」와 「레닌」도 이른바 左傾社會主義的 偏向과 左傾機會主義的 見解를 소개하고 자신의 解析과 對比하여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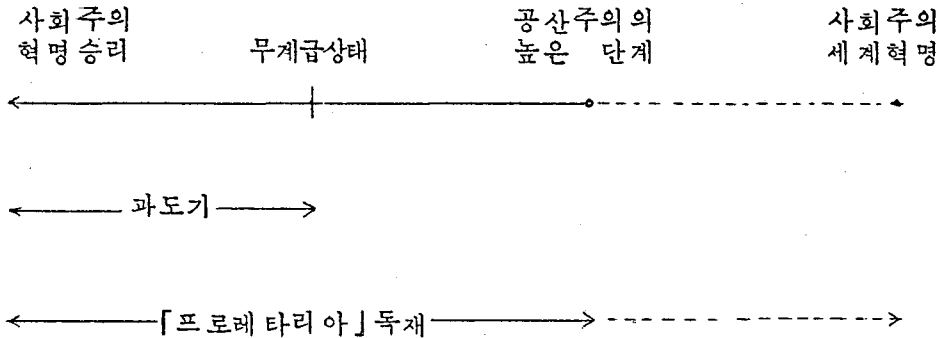
그의 見解의 特色은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時期的으로 一致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과도기」의 上昇線을 無階級社會까지로 긋고 있다. 그는 이를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을 전진시켜 중산층을 우리편에 완전히 쟁취하게 될 때, 노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게 될 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의 임무가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프로」獨裁에 言及하여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프로레타리아」독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계 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국가는 조작될 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제는 의연히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이 보는 공산주의 理念의 最終目標는 「各人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需要에 따라 분배받는」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이며 또 이에 더하여 社會主義世界國家의 건설인 것이다. 이러한 理念의 最終目標가 실현될때 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우연히 남아 있으며 國家도 殘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金日成의 國家觀은 Stalin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金日成의 見解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註8)



註8 : 안병영, 북한사회문화체제의 경험적 분석과 변동모형구성, 국토통일원 1972, pp.14-17

金日成의 專斷的 解析이 있는 후 이 問題에 대한 哲學的 論爭은 자취를 감췄음은 물론이다.

다음 북한当局 및 북한의 御用哲學者들은 「맑스·레닌」主義的 敎說이외에 모든 外來的 哲學思潮에 대하여 거의 극단적 拒否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西歐의 知性文化속에서 胚胎된 모든 哲學的 潮流에 대하여는 曲된 공박을 일삼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實存主義

북한은 西歐의 實存主義가 東歐의 創造的 知性들의 人間 疎外化에 대한 反抗의 觸媒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하여 북한当局은 이른바 「남조선에 유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적 본질」에 대하여 알레르기적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偏向的인 宣傳的 語句를 그대로 옮기면 「실존주의 철학은 현대 부르조아 반동철학의 주관 관념론의 한 유파이다. 실존주의 철학은 현대 부르조아 철학유파들 중에서도 비합리주의와 비관주의의 특성을 가장 노골적으로 체현하고 있으며」 「실존주의는 죽어가는 자본주의를 그 종국적 멸망으로 부터 구원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극복해 보려고 발광한다」^{註9)} 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實存主義者들이 論하는 「超越」이란 「信仰」을 의

註9 : 리지호, 남조선에 유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적 본질,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64, p.6

미한다고 解析하고 「이것은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인격으로 화할 것을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못밖음으로서 反宗教主義의 입장에서 實存主義를 攻駁한다.

북한의 御用哲學者들이 이른바 「브르조아」哲學類派中 實存主義에 대해 가장 極烈한 批判을 퍼 붙는 것은 實存主義가 보여주는 人間의 「主體的 存在」意識과 이에 대한 심각한 苦悶이 疎外意識속에 彷徨하는 북한 知性人에게 가장 큰 자극을 부여할 수 있다는 判斷과 實存主義 哲學이 보여주는 唯物史觀에 대한 批判的 姿勢때문이다.

(-) 實用主義

북한의 官用哲學은 實用主義를 批判하여 「일명 <행동의 철학>으로도 불리우는 실용주의 (Pragmatism) 철학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생활양식을 철학적으로 대변하는 극악한 주관적 관념론 철학이며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이용철학이다」註10) 라고 規定해 버리고 「맑스」主義者들의 「實踐」의 意味는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사회적 인간의 목적의식적 활동」註11) 으로 「실천의 중요한 형식들로서는 물질적 부의 생산활동과 계급 투쟁, 과학적 실험등」註12) 이 있음에 반하여 實用主義의 實踐觀

註10 : 前 揭 書, p.135

註11 : 前 揭 書, p.108

註12 : 前 揭 書, p.76

은 「개인의 주관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攻駁한다.

(c) 論理的 實証主義

世界 第一次 大戰 이후 「오스트리아」의 M. Schlick, R. Carnap, H. Feigl 등 이른바 「빈」(Wien) 學派에 의하여 비롯된 論理的 實証主義는 그 根本立場에 있어서 論理를 經驗으로부터 독립된 認識의 原理로서 중요시하고 經驗을 認識의 기초로서 존중하고 있다.

북한의 御用哲學의 根本立場에 의하면 論理的 實証主義는 「經驗」과 「科學」을 존중한다는 구실하에 形而上學을 反對하나 反對의 實質的 內容은 唯物論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科學主義 또는 論理主義는 一種의 主觀的 觀念論으로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이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론적 실증주의의 <초계급적>간판이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에 무관심한 일부 지식인들의 사상적 피난처」註 13) 로 되고 있다고 極렬한 非難을 퍼붓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語意論 (Semantics) 을 論理的 實証主義의 「最新式 變種」으로 想定하고 언어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연구하므로 이의 論究는 「민족허무주의와 비굴한 사대주의의 표현」註 14) 이라고 臆說을 전개한다.

註 13 : 前 揭 書, p.14

註 14 : 前 揭 書, p.15

(ㄷ) 新「토마스」主義

북한의 官學的 論理에 의하면 「新「토마스」주의는 남조선에 유포되고 있는 현대 「부르조아」철학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조류의 하나로서 종교의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철학이며 「카톨릭」교회에 복무하는 철학」^{註 15)}으로 못 받고 이는 叙上한 実存主義, 實用主義, 論理的 実証主義哲學의 主觀的 觀念論의 立場과 달리 世界의 始源을 絶對有 즉 神으로 보는 客觀的 觀念論으로서 「물질세계가 자체원인에 의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일반적 법칙성을 부인하면서 <목적론>을 설교하는」反動的 実存哲學이라 規定하고 있다.

북한 哲學界는 1960年 이후 中蘇紛爭의 露骨化와 연관하여 共產黨의 이론바 「主体確立」「自主路線」의 正當性을 해명하는데 全力을 傾注하고 있고 이에 따라 韓國 哲學史研究가 成行하고 있다.

2. 歷史學界

解放 이후 約 10年間 北한 的 歷史學界는 主로 唯物史觀의 立場에서 國史를 再構成하는 문제에 큰 힘을 기울였다. 1950年代 中半에 이르자 北한 的 歷史學界는 主로 論議의 焦點을 近代 實學思想研究에 맞추고 특히 丁茶山의 實學思想을 唯物論과 連關짓는 등 偏向的인 史的解析을 일삼았다. 이후 1960年代에 들어서며 金日成 偶像化趨勢에 應答한 「史學界는 이 하가 「革命傳統」研究의 旗幟아래 1930年代의 素위 「抗日武裝鬪爭」을 抗日運動의

註 15 ; 前 揭 書, p. 166

主流인 양 史實을 歪曲하는 등 金日成個人的 政治的 正統性을 提高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解放이후 10年間의 時期에 있어서 북한 史學界의 가장 큰 論爭은 「우리나라에도 奴隸社會가 있었느냐」와 否에 대한 論難이었다.

아직까지도 完全한 結論이 나지 않았으나 대체로 奴隸社會의 存在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는 方向으로 誘導되고 있다. 이후 북한 史學界는 黨의 單極的 歷史解析에 正當性을 부여하는 作業에만 치중하므로서 이렇다할 學術論爭은 찾아 볼 수 없었다. 第二期의 實學研究의 旋風은 주로 丁茶山研究에서 그 極點을 이루고 있으니 이는 1955年부터 1962年頃까지 적지 않은 御用著作산출의 계기를 만들었다. (丁茶山의 愛國主義 - 그의活動 - 김중식 - 1955, 丁茶山 - 科學院 哲學研究所 - 1962, 丁茶山의 經濟思想 - 김광진 - 1962) 비슷한 時期에 燕岩 박지원에 관한 研究도 성행하였음을 본다. (연암 박지원 - 김하명 - 1955, 박연암선생 : 우리나라 愛國的 史學者 - 윤세평 - 1955, 연암 박지원선집 - 최의황, 홍기문訳 - 1956) 이후 1960年代의 북한 史學界는 이른바 「抗日武裝鬪爭」研究 (抗日遊擊隊는 어떻게 創建되었는가 - 전형묵 - 1961, 抗日빨치산 參加者들의 回想記 - 朝鮮 勞動黨 中央委員會 出屬 黨력사研究所 - 1961, 朝鮮人民의 祖國解放戰爭勝利의 國際的意味 - 이봉호 - 1965) 와 기타 金日成研究 (朝鮮民族의 偉大한 領導者 - 朴尚赫 - 1964 -, 民族의 太陽 金日成將軍 - 백봉 - 1968, 金日成同志의 文獻 고전 - 1969, 金日成同志의 革命注動略歷, 1970) 등으로 集約되는 御用史學의 面모를 더욱 뚜렷이 하므로서 그 粗惡化過程을 더욱 深化시키고 있다. 考古學分野에서는 金錫亨의 研究 (「日本船山古墳에서 發掘된 刃劍의 銘文에 대하여」, 「日本の 天孫降臨의 神話를 통해 본 禿洛人の 日本列島에로의 進出」)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註16)}

註 16 : 北韓總覽, pp. 56-85 參照

V. 文学, 芸術分野

1946年 10월에 党的 御用的 組織으로 出帆한 「北朝鮮大学 芸術總同盟」은 戰乱時期에는 戰爭意慾강화를 위한 英雄化 形象作業에 주력하다가 終戰이후 敗戰의 責任을 묻는 南勞党 肅清旋風이 文学, 芸術分野에도 휘몰아 치자 体制整備의 필요성에 위해 解体의 運命을 맞는다. 이후 1961年 「朝鮮文学芸術總同盟」이 再結成되기 까지 文芸總은 作家同盟, 作曲家同盟, 芸術同盟등 各部分同盟으로 分化되어 党的 知的 道具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략 1952년부터 1962년까지에 이르는 時期동안 북한 文端은 극심한 派閥싸움과 肅清의 連結으로 点綴된다. 즉 南勞党界의 宗派로 몰려 숙청된 林和, 金南天, 李源朝(1952-53년)의 例와 韓雪野와 李泰後의 暗闘속에서 追放된 洪淳哲의 경우(1954), 이에 뒤이은 李泰後의 終來(1956), 安漠, 崔承喜의 肅清(1958)과 이른바 「文芸濼-集中指導」에 따른 韓雪野의 沒落(1962)이 그것이다

1962년에 있었던 제二次 集中指導에서는 正委員 400名中 90名이 숙청되는 末曾有의 事例를 남겼다.

1950年代의 북한 当局의 文芸政策의 根幹은 戰後 復旧 社会主義建設에 力点이 두어졌으나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党 文芸政策이 이른바 革命傳統 즉 金日成 偶像化 方向으로 集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文芸政策의 御用化의 정도는 그 極에 이르고 있다.

특히 文学, 芸術家에 대한 50年代, 60年代初의 党的 体系的 「테로」(Systematic terror)의 體驗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深化시키고 있다.

1. 文芸政策의 基本方向

北韓當局이 추진해온 文芸政策의 基本立場은 이른바 「党的이며 階級的이며 人民的인 文芸路線」이다. 이러한 立場은 1956年 1月 18日 党 中央委 常務委員會決定書에서 가장 端的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즉 「맑스·레닌」주의에 의하면 예술은 결코 「부르조아」관념론자들이 말하듯이 <예술을 위한 예술>도 초계급적 존재도 아니며 <사회관계의 총체> 「맑스」로서의 인간의 생활을 반영하는 사회의식 형태의 하나이며 인간의 세계인식과 계급투쟁의 무기이다.」

따라서 文學 및 藝術은 북한에 있어 階級과 人民의 이름을 빌린 党的 政治的 意表가 요구하는 데로 이에 順從하여야 하는 政治的 待女로 轉落한다. 김일성의 표현에 의하면 「당성(党性)의 중요한 특성은 결합과 해독적 경향들과 또는 우리에게 적대되는 사상을 우리속에 침입시키려는 경향들의 온갖 표현들에 대한 원칙성과 비 타협성입니다」^{註17)} 이에 作家나 藝術家로서의 主体的 意識의 표현이나 創造的 活動을 위한 思想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하므로써 이들은 党을 위한 知的 道具로 그 역할이 轉倒되는 것이다.

黨은 이러한 基本立場의 강화를 위하여 이른바 社會主義的 事實主義를 강조하며 이러한 觀点에서 全 文學史를 既觀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노동계급의 영웅적 해방투쟁과정에서 인류문화발전의 합법칙적인 가장 높은 단계의 예술창작방법으로 발생

註 17 : 연강철, 우리당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해방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발전의 특징, p.82 참조, 김일성 선집, 제 4권, p.376

하였다. 이 창작방법은 노동계급의 과학적 세계관을 그의 세계관적 기초로 하고 과거 인류문화가 달성한 모든 우수한 성과를 섭취하고 그의 역사적 제한성을 극복함으로써 생활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진실한 묘사를 예술에 가능케 하였다」^{註18)}

북한의 御用文學으로 자리를 굳힌 이들의 입장에서는 解放前과 解放後의 社會主義的 事實主義의 文學 思潮를 別하여 해방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지상의 쟁취를 위한 당대 불합리한 사회제도와 투쟁속에서의 생활묘사」에 力點을 두었음에 반하여 解放後에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적 현실을 긍정하며 그 사회제도와 국가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문학」^{註19)}으로 轉化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反體制的 文學의 體制支援的 文學으로의 役割變 更을 뜻하며 또한 批判文學의 御用文學으로의 態度變化이기도한 것이다.

1947년 黨 中央 常務委員會 第29次 會議는 作家 藝術家들은 「조선 사람의 영웅적 노력과 투쟁과 승리와 영광을 고상한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그릴 것」을 指示하고 이를 위해 文學, 藝術人들은 思想意識을 提高하므로써 「맑스·레닌」주의 世界觀으로 武裝할 것을 주장하고 또한 人民生活과 藝術과의 連繫의 強化를 위한 現地 派遣事業을 강조했다. 이에 黨은 미래를 위하여 대중을 부르는, 藝術創造와 「인간의 의지를 개조하는 기사」^{註20)} 로써의 作家, 藝術家를 要求하였으니 이는 文學과 藝術分野에서 종사하는 知識人들을 黨의 무자비한 大衆動員政策에 앞장세우기 위한 方法이었다.

註 18 : 前揭書, p.90

註 19 : 前揭書 p.91

註 20 : 前揭書 p.93

따라서 이들은 革命傳統, 階級敎養, 党的 思想体系을 토대로한 作家 및 藝術家의 現實研究를 강조한다. 「현실연구는 문학의 진실성, 인민성, 예술성을 획득하는 결정적 조건이며 당의 정책을 생동하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데로 부터 출발한다.」

現實研究의 입장에서 북한 当局은 6.25事變中에는 「대중적 영웅주의의 산 인간형상의 창조와 전투적 문학의 확립」을 강조하였고 1960年代는 「천리마 현실연구」를 그 중심「테마」로 삼도록 敎示하였다. 또한 金日成 偶像化의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그의 語錄이 文學 및 藝術의 價值志向의 表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文學論争의 事例

한가지 特定한 사실은 1960年代 初半의 이른바 「조선에서의 사실주의 발생시기문제」에 대한 북한 評論界의 論争이 있었다. 북한 文學界의 定說에 의하면 이미 12-14世紀에 우리나라에서는 「唯物論的 藝術思想이 支配的」이었으며 따라서 方法으로서의 事實主義文學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批判的 事實主義의 發生時期를 둘러 싸고 리응수 <조선어문 1960년 3호>의 18世紀로 보는 見解와 안함광 <안함광 평론집 1966>의 20世紀 初葉으로 보는 見解가 대립된다.

이응수는 「자본주의 싹이 뚜렷해진 18세기말에 사실주의 맹아가 텃타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안함광은 이에 反論을 제기하여 「우리가 사실주의를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의 역사적 소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정도와 미학적인 사상의식 및 예술적 기능이 일정하게 발전된 사회역사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자본주의적 사회의 소산으로만 귀착시키며 단순화해 버려도 좋다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註21)} 라고 反駁하며 18世紀 朴燕岩의 文學에서는 啓蒙期 事實主義文學의 特色인 理性主義의 원칙이 지배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어서 「만약 연암의 창작방법으로서의 비판적 사실주의가 형성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3.1 봉기 이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이 발생되기 까지 일관된 자기의 발전과정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문학에서 문학발전의 실지정형은 19세기 말로 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제몽기 사실주의의 특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비판적 사실주의에로의 이행은 어느때 부터 뚜렷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1910년 이후의 문학 작품들에서, 비로서 찾아 보게 된다.」^{註22)} 라고 주장한다. 북한 文學界의 定觀은 이후 批判的 事實主義 文學의 發生時期를 後者の 見解에 따라 1910年이후, 특히 「맑스·레닌」주의 역사적 필연성」과 「무산계급운동의 일부분인 무산계급 예술운동」을 표방한 「카프」의 一連의 「프로레타리아」作家들이 出現한 1920年代로 잡고 있다.

위의 論爭에서 事實主義를 社會發展의 일정 단階의 歷史的 所屬이라고 斷定한 이응수의 觀點은 「레닌」의 素朴한 「反映論」을 投影한 것이라고 하면 안함광의 立場은 어느 정도 「上部構造」의 役割을 重視한 發展的 解析方法으로 看做될 수 있다. 두가지 見解中 後者가 通說로 자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어느

註 21 : 안함광, 문학의 탐구, 조선문학예술 총동맹 출판사, 1966, p. 14-15

註 22 : 前掲書 p.38

정도 間의 精神文化 내지 立体的 意識의 重要性이 文學界(知識人) 一般에 受容될 수 있다는 意味로써 어느면 鼓舞的인 事實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1964年 刊 文學개론(박종식, 형중호, 이상태)에 의하면 「문학의 상부구조적 기능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식 형태가 토대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반작용하며, 토대의 공고화에 있어서 강력한 사상적 무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

3. 群衆文化

북한當局은 文學家, 藝術家를 통한 大衆操作의 手段으로 이른바 群衆文化活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이들은 群衆文化活動을

- ① 音樂, 舞蹈, 演劇, 藝術, 文學등 각종 「藝術「씨울」活動
- ② 各種 體育活動
- ③ 讀書, 映畵鑑賞, 光觀宣傳(벽보, 사진전시, 박물관, 전람관등)
- ④ 生産文化, 言語文化 등으로 구별하고 이를 文化省에서 管掌해 왔다. 註23)

이러한 群衆文化政策은 Korakowski의 表現을 빌려면 「知的 「맑스」主義」대신에 「체制的 「맑스」主義를 下向的으로 大衆文化속에 침투시키려는 施囑로서, 이는 大衆들의 눈에 體制와 知識人을 同一視하는 認識을 부채질 하게 되며 立体的 知性文化의 枯渴을 刺戟하게 되는 結果를 낳게 된다. 따라서 知性文化와 大衆文化의 자유로운 知的 交涉의 가능성을 遮斷하는 傾向을 깊게 하고 또한 知性文化가 大衆文化를 立体的으로 先導할 수 있는 계기를

註 23 : 北韓總鑑 p.621

좁히는 것이다.

이미 本章의 序頭에서 밝혔듯이 북한과 같은 극심한 全体主義的 政治文化속에서 싹트는 機會主義的 青年文化의 傾向을 고려 할때 북한當局의 群衆文化政策은 批判的 知性文化가 설 자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大衆操作의 典型인 것이다.

VI. 小 結 論

(1) 북한의 旧 「인텔리겐차」中 그 대부분은 社会的 出芽成分과 過去의 經歷때문에 体制의 不信속에 転落의 運命을 甘受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은 政治的 階層構造의 硬質性때문에 再活의 기회를 잃었다. 특히 創造的 知識人の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하였고 技術的 知識人の 경우 그 現實的 活用度에 따라 相異한 待遇를 받게 된다.

(2) 이른바 새로운 社會主義的 「인텔리겐차」가 현재 數的으로 旧 「인텔리겐차」를 훨씬 능가하고 있고 体制의 信任度도 높으나 이들은 文化的 概念에 의하여 파악되는 知識人の 範 라기 보다 精神的 勞動者의 總稱이라는 극히 形式的인 範疇의 概念이다. 또한 이들은 극도의 社會主義的 社會化 過程속에서 閉鎖的 世界觀과 機會主義的 人生觀을 体質化했을 가능성이 높고 批判的 知性文化의 傳統이 없다. 특히 外來思潮와의 交涉斷絶과 單極的 金日成 唯一 体制속에서 이른바 体制的 「맑스」主義」의 驅的 行動役으로 자기를 認識한다.

그러나 이들중에도 그들이 수행하는 機能과 知識人 本然의 知的 關心에 따라 人間疎外化의 「体制的 「맑스」主義」에 대한 潛在的

反撥을 느끼고 보다 자유로운 知性文化의 可能性을 摸索하는 部類가 殘存할 것으로 생각된다.

(3) 知識人 階層中 創造的 知識人의 範疇에 대한 体制의 強壓的 統制政策은 특히 文芸人의 肅清史속에서 밝혀진다. 또한 이른바 「群衆文化」政策속에서 이들 階層은 体制의 大衆操作을 위한 知的手段으로 轉落한다.

특히 1960年代이후 이러한 傾向은 深化된다.

(4) 技術的 知識人中 專門的 行政, 經營官僚들의 政治的, 社会的 成長은 括目할 만하며 技術者, 專門家들의 需要 또한 漸增하고 있는 形편이다. 이들의 體制 終屬的 性向은 의심할 바가 없다.

(5) 그러나 북한 社会의 變動 특히 産業化 過程의 深化에 의한 合理的 慣行의 一般化, 脫理念的 傾向의 普通化 등은 특히 技術的 知識人의 思考 및 行態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이들이 경우에 따라 「Insider」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차 계한다.

(6) 北한 社会의 知性文化의 定向과 內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은 反知性的 政治指導体系의 存在이며 이의 變化는 批判的 知性文化의 새로운 可能性을 示顯할 수 있다. 또한 體制 管理期와 政治的 安定期에는 知識人의 注動이 보다 生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나, 南北關係에 따른 慣性的 政治不安은 知性文化 高揚에 音影을 던져 준다.

(7) 그러나 環境的 刺戟의 導入, 즉 外來思潮와의 접촉은 이러한 知性風土에 變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家族價值 등 傳統的 文化 價值에 대한 知識人의 鄉愁나 個人的 自

由나 実存, 批判的 人間能力에 대한 知性 本来의 追求性向은 새로운 知性文化 高揚에 기반을 形成할 수 있다.

(8) 批判的 知性文化가 体制 内外의으로 生動하고 이것이 青年 文化를 先導하고 또한 大衆文化와 接觸할 수 있는 경우 社会 및 文化變化의 「요람」이 형성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이다.

第五章 南北接觸의 深化와 知識人 階層의 意識 構造의 變化 (結論)

I. 統一을 위한 段階構成

南北對話가 坐礁의 危機에 놓여 있는 現在의 時点으로는 南北接觸의 앞으로의 展望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万若 南北統一을 必然的인 歷史的 過程으로 前提하고 論理的 推理를 통 하여 이를 위한 段階樣式을 施圖해 볼때 아래와 같은 몇개의 單位過程을 想定할 수 있으니 이들 段階는 우리편의 戰術的 座標로 이해할 수도 있다.

第一期： 現實主義的 統一論議의 國論化 段階

第二期： 共在的 競爭 段階

第三期： 民族的 生活共同體의 形成 段階

第四期： 政治的 統一의 段階

개개의 段階를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1) 現實主義的 統一論議의 國論化 段階

이 段階에서는 우선 統一이라는 歷史的 課題가 합축하고 있는 民族的 次元과 政治的 次元에 대한 바른 認識을 國民에게 周知시키며 아울러 서서히 統一論議를 現實主義的 次元으로 이끄는 方向이다. 즉 民族的 次元에서 統一의 當爲性을 강조하며 또한 國土分斷이라는 現實的 政治形勢와 多極化하는 國際的 政治體制속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姿勢에 대한 說得이 이에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分斷의 暫定的 固着化의 경향이 짙은 第二段階에 대한 豫備作業으로 反統論을 배격하면서 異質的 部分秩序間 統合→統一의 가능성을 摸索하는 過程이다.

(2) 共存的 競争段階

이 段階에서는 南北이 繼續的인 交渉과 再統一을 前提로 하면서 暫定的으로 分斷現實을 公的으로 再確認, 制度化하고 兩側間의 共存的 信賴속에서 競争을 피하는 段階이다.

따라서 이 段階에서는 南北이 서로 自己體制가 지니고 있는 脆弱點을 発見, 補完하며 平和的인 方法으로 競争에서 앞서기에 專念하는 段階로 생각할 수 있다. 이 段階속에서도 兩側은 가능한한 相互間의 接觸을 擴大하여 人的, 物的 交流가 進歩되도록 配慮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民族的 生活共同體의 形成段階

이는 一種의 새로운 國民形成化 段階 (New Nation Building)라 할 수 있으니 南北韓은 相互間에 그동안 성취한 發展 效果와 接觸을 통하여 이룩한 信賴感등을 基盤으로 民族的 共同生活圈을 構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過程속에서는 서로간의 一體感, 紐帶感, 共同運命體感 등을 提高할 수 있는 모든 條件을 後無시키기 위하여 相互體制의 開放과 人的 物的 接觸의 量的 擴大와 質的 深化를 進행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하여 兩側間의 接觸을 仲介하고 이를 制度化 시킬 수 있는 汎體制的 常設機構의 創出과 이의 發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段階에 있어서는 이미 그간 이룩한 産業化 過程에 따라 南北韓에 共히 企業社會의 共有的 文化的 屬性이 一般化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兩側間의 平等主義的 契約的 접촉「페턴」이 生成되고 合理的인 慣行이 社會의 主要한 Ethos로 성숙된 것이 豫想된다. 이는 兩體制間의 理念的 隔差를 좁히며 生活 共同體 形成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政治的 統一의 段階

南北韓 社會間의 體制上의 差異가 漸減되고 共有的 民族意識이 發芽되어 相互間의 殘存하는 隔差를 메꾸기 시작하면 一種의 새로운 國家形成 (State Building) 의 단계인 政治的 統一이 論議될 수 있다. 이때는 이미 兩體制는 서로가 部分秩序로서 그 이상 生存하기 어려운 정도로 相互依存的 聯關構造가 형성되고 共有的 生活樣式이 普通化된 然後이어야 할 것이다.

II. 意識構造變化의 樣態

이상에서 극히 非 現實的 假定위에 南北接觸의 가능한 段階構成을 시도하여 보았다.

위의 模型은 論理的으로 볼때 이하의 몇가지 前提위에 設定되어 있다.

(i) 北韓의 政治指導體系의 統一意志를 肯定的으로 一旦 이해한다

(ii) 北韓의 政治指導體系는 위의 段階의 進行에 따라 伸縮的으로 對處하며 또한 自律的 體制變化의 用意가 있다.

(iii) 北韓은 産業化 過程의 深化와 더불어 産業社會가 가지는 文化的 特性을 점차적으로 受容하며 이는 體制속에 合理的 行態를 一般化 시킨다.

(iv) 統一은 必然的인 過程이며 이는 兩體間의 機能的 接觸의 深化와 收斂에 의한다.

비록 非現實的 假定이나 위의 模型을 南北接觸의 未來的 段階로 想定할 때 接觸이라는 外的 刺戟에 따른 北韓 知識人들의 意識構造上의 變化可能性을 우선 圖式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期： 体制的 「맑스」主義

第二期： 知性的 「맑스」主義

第三期： 脱 「맑스」主義

第四期： 多元的 相對主義

그러나 이러한 變化可能性은 무엇보다 북한의 政治指導體系가 知識人 階層의 漸進的 意識構造의 變化에 대하여 決定的 障礙로 登場하지 않는다는 非現實的 가정위에서만 가능한 證明임은 물론이다

(1) 第一期： 体制的 「맑스」主義

現在 북한의 知識人階層은 이미 敎條化된 金日成 唯一思想 體系의 構築과 拡散을 위한 知的 道具로 행동하고 있다. 이는 「그때 그때에 政權이 意志하는데로 순응할려는 자가 「맑스」主義 者가 된다」는 部類의 「맑스」主義者라 할 수 있다. 이들 知識人 階層은 技術的 知識人이나 創造的 知識人間에 区分이 필요없을 정도로 体制忠誠的인 存在들이다. 「Outsider」는 물론 「Insider」도 顯在的으로 表出되지 않고 知識人 集團은 体制에 의 해 独占的으로 解析되는 「맑스」의 敎義를 大衆에게 伝達하고 政治의 侍女로 体制樣築과 体制管理에 動員된다.

따라서 批判的 知性文化의 土壤은 枯竭되고 社会變革이나 政治的 異議의 雲源은 발견되지 않는다.

(2) 第二期： 知性的 「맑스」主義

共存的 競争段階에서는 南北韓은 서로 相對體制와 對比하여 자신의 脆弱點을 補償하기에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當局은 지나친 動員, 統制政策을 부분적으로 修正하고 人間의 個人的 價值와 合理主義的 思考 내지 行態에 대한 關心을 表明한다.

南北間의 接觸이 擴大되고 이에 따라 部分的으로 나마 大韓民國

의 個人爲主의 相對主義 價值觀과 「휴머니즘」의 哲學思潮가 북한에 流入되면 이는 북한 知識人들의 價值定向 (Value Orientation)에 變化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知識人 集團은 人間疎外的 官僚體制와 「프로」獨裁 國家主義에 대한 反撥을 느끼고, 金日成 唯一思想에 의하여 獨占解析되는 教條的 「맑스」主義로 부터 차츰 方法論的 合理主義에 입각한 「맑스」解析을 꾀한다. 이러한 새로운 思潮는 體制의 對知識人政策의 方向과 統制의 程度에 따라 相異하나 일반적으로 創造的 知識人이 「Insider」로 登場하게 되는 機회가 마련될 수 있다.

南北접촉의 외에도, 體制의 漸進的 開放化에 따른 對 쏘·東亞접촉은 批判的 知性文化 構築의 가능성을 높이고 機會主義的 青年文化에 새로운 氣運을 流入시킨다. 技術的 知識人의 社會的 上向 可能性은 提高되고 이들이 차츰 權力의 核心에 接近한다.

(3) 第三期: 脫 「맑스」主義

南北間의 單一的 生活共同體形成의 氣運이 무르익고 兩側間의 交流보다 量的으로나 質적으로 深化될 수록 環境的 刺戟에 대한 反應은 보다 과감하게 表出된다.

第二期를 거치면서 集積된 批判的 知性文化 形成의 가능성과 그 간 進行된 產業社會化의 影響 및 새로이 發芽 認識된 民族意識은 人間疎外的 階級獨裁로 부터의 脫皮를 助張한다.

이미 主要한 政治的 意思決定에 主要한 역할을 担当하는 技術的 知識人들은 體制內에 構築된 批判勢力으로서 組織內的 民主主義의 實現을 강조하고 脫理念的 組織行態를 實踐에 옮긴다. 이에 따라 「制度的 多元主義」(Institutional Pluralism)의 崩芽가 엿보

이게 된다. 이에 政治的 指導體系는 知識人集團에 대해 寬容政策을 標榜하면서 內密的으로는 不斷한 統個化의 可能性을 摸索한다.

創造的 知識人中 「 Outsider 」로 化하는 「인텔리겐차」의 數가 점차 增大하고 이들은 青年文化를 先導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群象文化, 形態의 知識人の 大衆接觸은 없어지고 大衆文化와 交感할 수 있는 精神文化의 터전을 構築한다.

이 過程속에서 知識人 集團은 「맑스」主義에 대한 全人格的인 歸依를 知的 活動의 前提로 認識하는 종래의 態度에 대한 自己 批判을 시작한다.

第四期： 多元的 相對主義

南北韓의 政治的 統一의 氣運이 形成되면서 體制의 汎世界的 開放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知識人 集團은 점차 종래의 形式的 範의 概念으로 부터 文化的 範의 概念으로 변화하며 单一的 社會價值에 대한 盲信에서 多元的 社會價值에 대한 理解와 寬容의 姿勢로 그 의 方向을 바꾼다.